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27

03

유럽 박물관 기행

파리, 루브르 박물관(Le musée du Louvre)
자신의 욕망을 쫓은 자크 루이 다비드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단막극의 걸작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2019 봄/여름
예비시존 라인업 확정



신춘음악회

- 무용과 국악관현악 [춘무]
- 창작국악관현악 [매화 봄향기 속으로]
- 창작국악관현악 [청춘도]
- 송소희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매화타령, 태평가, 경북궁타령]
- 창작국악관현악 [관현악을 위한 뱃노래]

봄향기 속으로



춤 허경미

지휘 홍희철

민요 송소희

2019. 3. 26(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주최 |



1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1입장료 | 1층 10,000원 2층 5,000원

1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051-607-3124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II
The Richard Strauss Cycle VIII - Complete Tone Poem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0회 정기연주회

등정

The Alps!

2019. **4.16** TUE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알프스 교향곡에 관한 좌담
Talks about Eine Alpensinfonie

슈트라우스 · 알프스 교향곡
R. Strauss · Eine Alpensinfonie, Op.64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스토리텔러 김석훈 Suk Hoon Kim, Storytelle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관)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PO KIDS
 부산시향의 CONCERT
 우리 아이 음악회

프로그램

• 음악회 관람

모차르트 •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프로코피예프 • 피터와 늑대

• 악기 체험

지휘 이요섭 Joseph Lee, Conductor
 진행-내레이션 박지현 Ji-Hyun Park • MC, Narrator

2019. 3. 29 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www.bscc.or.kr

티켓 전석 5,000원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무료 ▶ 장애인 | 국가유공자 (1인 2매)
 60% ▶ 정기회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50% ▶ 가족할인(보호자와 아이동반 관람시)
 ※단체할인(2,000원권) / 15인 이상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9년 3월호 통권 327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주간 이승훈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2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06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 08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3월 공연캘린더
- 12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2019 봄/여름 예비시즌 라인업 확정
- 18 BACKSTAGE OPERA
시칠리아, 지중해 풍경이 물씬 느껴지는 단막극의 걸작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20 MUSEUM OF EUROPE
파리(Paris), 루브르 박물관(Le musée du Louvre)
자신의 욕망만을 좇은 자크 루이 다비드
- 24 TRAVEL WITH YOU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 30 PREVIEW
- 38 ISSUE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 40 REVIEW
- 42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51 NEW BOOK
새로 나온 책
- 52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이번호 <예술에의 초대>부터 ‘극장장의 손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중추적인 문화기관의 하나인 (재)부산문화회관의 대표(이사장은 부산시장)이자 7개의 부산시립예술단(단장은 행정부시장을 위탁 운영하는 부단장으로서 넓게는 세금을 내는 부산시민들께, 좁게는 직접적인 이용자인 관객 여러분께 그때그때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문화시설과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큰 틀의 철학에서부터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존재이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나 관객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대표’가 아니라 ‘극장장’의 편지냐고요?

극장(theatre)은 음악(오페라)과 연극(뮤지컬), 무용 등 공연예술이 창작, 향유되는 곳입니다. 창작을 위해 우수한 예술가들이 모이고 향유를 위해 시민들이 찾는 장(場)입니다. 예술가들이 그들의 꿈을 펼치고 관객들이 꿈을 꾸는 무대가 있는 곳이 곧 극장(劇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극장의 조직이고 그 리더가 극장장이므로 저는 딱딱하고 권위적인 냄새가 나는 대표보다 극장장이라는 호칭이 더 좋습니다. 그런 극장의 많은 이야기들을 제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 편지’라는 표현도 그래서입니다.

첫 번째의 손 편지 이야기는 ‘극장과 예술단체’ 즉,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는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의 시·도립 극장 즉, 우리가 흔히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이라 부르는 곳에는 많은 예술단체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부산문화회관에도 7개의 단체가 존재합니다. 아시타시피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등 5개의 음악단체와 무용단, 극단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유럽이나 미국 등 이른바 문화선진국이라는 곳의 예술단체와 극장의 관계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극장이 예술단체를, 그것도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꾸로 예술단체가 주축이 되어 극장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나의 예술단체가 하나의 극장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하나의 극장에 여러 예술단체가 존재하더라도 공연의 중심은 예술단체에 있습니다. 대관이 없을 정도로 예술단체의 공연이 많다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가령 우

리가 잘 아는 발레리나 강수진(현 국립발레단장)이 있었던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도 발레단, 교향악단, 오페라단, 극단 등이 있는데, 그 도시의 예술적 자산으로서 슈투트가르트 극장보다는 슈투트가르트발레단 같은 예술단체가 더 두드러집니다.

우리도 한 도시의 예술적 자산인 예술단체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인 극장보다 더 빛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네들을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술단체나 단체의 공연들이 극장의 기획공연에 묻혀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사도립 문화회관 운영자들이 가졌던 극장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장중심의 사고 때문에 기획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이라는 공연들을 ‘유치’하기에 바빴고, 예술단체의 공연은 그 빛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와 중앙지역의 공연들로 뒤덮힌 극장에 ‘지역이 없다’, ‘부산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제는 예술단 중심의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술단의 창작이 많아져야 하고 또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역과 부산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반대로 중앙과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하게도 예술단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술적 스펙트럼도 전통에서 현대성까지, 장르중심에서 융복합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도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선 이에 부합하는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를 모셔 와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향악단이 능력과 신선함,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그러면서도 관객 친화적인 지휘자를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마침 공식인 6개 예술단체에 보다 역량이 있고 신선한 예술감독과 지휘자들을 초빙하기 위해 공모가 아니라 추천 방식을 선택



한 것입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갖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니 곧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잘 하는 분들은 임기를 연장하되 적어도 1년 앞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만 두더라도 1년 전에는 후임 예술감독을 선정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계에서는 우리 부산시립예술단의 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감독이 오게되느냐,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제도적 혁신이나 실험이 이뤄지느냐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손편지에서 더 자세하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19 MARCH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018년 12월 24일(월)~2019년 3월 3일(일)
아동 2만3천원, 성인 1만7천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주)PMC네트웍스 1599-7372

◆ **관람시간**
평일(화~금요일) 오후 1:20, 2:00,

2:40, 3:20(*평일 오전은 단체관람으로, 일정에 따라 개인 관람 가능)
주말·공휴일 오전 10:20, 10:50, 11:20, 11:50, 오후 1:20, 1:55, 2:30, 3:05, 3:45, 4:20

※ **체험시간 1시간 40분**
※ **매주 월요일 휴관**

부산광역시 단위수석회 합동전시
3월 14일(목)~3월 17일(일)
백형국 010-3853-5481

3

4

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0

11

12

이웃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T-콘서트 14:00
대 무료/티브로드(070-8188-9616)

UKO 오케스트라 제 44회 정기연주회
‘사랑나눔 음악회’ 19:30
대 전석 2만원/UKO(988-3087)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18:0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누리에 **‘여자 이발사’ 19:3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18

1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핑크풍랜드_황금별을 찾아라’ 11:00, 14:00, 16:30**
대 5만5천원·4만4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양상블 자비에 제3회 정기연주회 18:00
중 전석 2만원/김규(010-4006-005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썬샤인의 전사들’ 19:3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개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25

26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엘리자벳’ 14:00, 19:00**
대 15만원·13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0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봄의 소리’ 19:30**
대 1만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31



WED	THU	FRI	SAT
		<p style="text-align: center;">1</p> <p>3:1운동 100주년 및 국제신문 복간 30주년 기념음악회 17:00 대 무료/국제신문(500-522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2</p> <p>스탠딩에그&커피소넨 콘서트 19:00 대 전석 7만7천원 (주)컬처팩토리(811-104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6</p> <p>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극단 에저또 '순이' 19:0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7</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9회 정기연주회 '클래식한, 봄맞이'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019 제37회 부산연극제_극단 에저또 '순이' 19:3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전지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 V 19:30 전 전석 2만원/아마데우스(070-7677-654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8</p>	<p style="text-align: center;">9</p> <p>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18:0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13</p> <p>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누리예 '여자 이발사' 19:3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1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년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19:30 대 6만원-4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합창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R. Schuman series II '여인의 사랑과 생애'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 style="text-align: center;">15</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1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핑크폰랜드_황금별을 찾아라' 11:00, 14:00, 16:30 대 5만5천원-4만4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김미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17:00 전 전석 1만원/김미희(010-2665-271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부산연극제작소 동넙 '썬샤인의 전사들' 19:3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2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2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엘리자벳' 19:30 대 15만원-13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맥 '이넉 머리에선 향기가 나네' 19:3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이윤지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전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style="text-align: center;">2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엘리자벳' 14:00, 19:00 대 15만원-13만원-9만원-7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경연작_극단 맥 '이넉 머리에선 향기가 나네' 18:00 중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p> <p>가야금 앙상블 더샐 정기연주회 16:00 전 초대/박경진(010-8230-4665)</p>
<p style="text-align: center;">27</p>	<p style="text-align: center;">28</p> <p>글로리콰이어 제27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 글로리콰이어(010-8544-4702)</p>	<p style="text-align: center;">29</p> <p>◆(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부산시향의 2019 우리아이음악회' 11:00 중 전석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style="text-align: center;">3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 17: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비바 챔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9:00 중 초대/비바 챔버오케스트라(010-8510-4654)</p>

3

2019 MARCH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노만 파킨슨'展_스타일은 영원하다
2월 15일(금)-4월 30일(화)
일반 8천원, 초중고·경로우대 3천원
패션전공 대학생 4천원, 유아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7:00 입장마감)

◆ **도슨트 운영**
월-목요일 오전 10:00, 오후 3:00(15인 이상 단체 예약), 금-일요일 오후 1:00, 3:00(일반)

3

4

5

10

11

12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이야기 '노다지' 18:00
☎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이야기 '노다지' 19:30
☎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

17

18

19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더블스테이지 '클로즈업' 18:00
☎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

24

25

26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4 짜릿짜릿 전기대소동' 11:00, 14:00
대 5만5천원-4만5천원/(주)하늘이엔티(1688-6675)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극단 세진 '스트랜딩' 폐막식 18:00
☎ 전석 2만원/(사)부산연극협회(645-3759)

31

더 뮤지컬 '런닝맨-마지막 승자' 11:00,14:00
대 5만5천원-3만3천원
(주)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11:00
☎ 전석 1천원/부산시립무용단 (3121~2)

COVER STORY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2019 봄/여름 예비시즌 라인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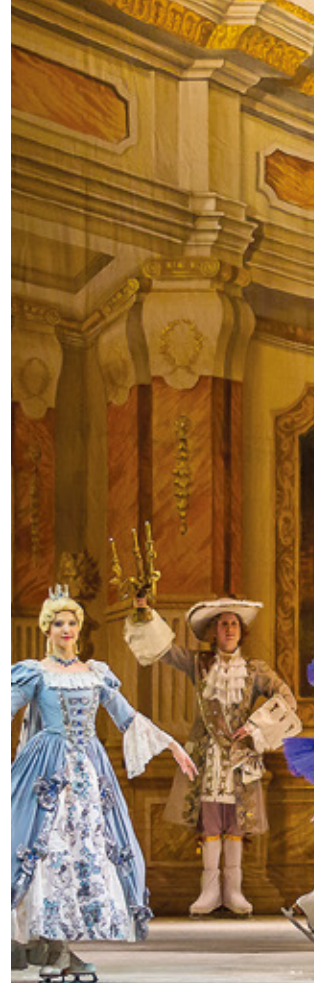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PD 김민지

(재)부산문화회관은 하반기부터의 본격 시즌 운영을 앞두고 봄/여름(3월~8월) 기획공연을 대상으로 예비시즌을 운영한다. 예비시즌 전 공연의 티켓은 2월 15일에 오픈했다.

관객 편의적인 서비스, 공연장 브랜드 및 정체성 확립

유럽 또는 북미 국가들은 긴 여름휴가를 피해 보통 9월부터 이듬해 5월~6월에 이르는 기간을 한 시즌으로 공연을 운영한다. 국내에도 대표적인 공연장과 예술단체들의 시즌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부산문화회관도 시즌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시즌 프로그램 중에서 패키지 티켓 구매는 관객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술 소비를 가능하게 해준다. 일정 시즌 내 계획된



뮤지컬 '엘리자벳'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여 관객들이 좋아하는 공연 관람을 미리 계획하고 좋은 좌석을 할인된 가격에 선점토록 한다는 것이 시즌방식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 수준높은 공연으로 구성된 화려한 라인업

(재)부산문화회관의 봄/여름 예비시즌은 <명품 패키지>, <연극 패키지>, 오전 11시의 여유 <마티네 패키지>, 인문학과 클래식 만남 <노자와 베토벤 패키지>, <자유 패키지> 등 총 5가지 구성의 패키지로 만나 볼 수 있다.

<명품 패키지>는 신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상트페

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유라시아 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EOPO 챔버 뮤직 '실내악으로의 초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2',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 꽃보다 할배의 로맨스 '장수상회'는 <연극 패키지>로, 총 6회로 진행되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마티네 콘서트 시즌 5'와 인문학과 클래식의 만남 '노자와 베토벤-고진감래(苦進感來)'도 패키지로 만나 볼 수 있다. 이외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컨템포러리 댄싱 스타들의 '가을운동회' 등 7개 작품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패키지>로 구성되었다.

커버스토리



지휘자 이반 피셔



피아니스트 조성진



소프라노 조수미

연극 '장수상회'



이처럼 이번 봄/여름 예비시즌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장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비시즌은 클래식이 주를 이루던 기획공연에서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균형있게 구성하고자 했으며, 심지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현대무용도 편성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소프라노 조수미, 2017년 토니상 8개 부문 노미네이션 및 여우주연상 수상작 '인형의 집, Part 2' 등 수준높은 공연들 역시 포함되었다.

한편,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재)부산문화회관의 본격 시즌 프로그램은 부산시립예

술단의 공연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통합하여 균형있는 장르의 시즌 구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관객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
예비시즌 프로그램**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이번 예비시즌 프로그램은 기존 관객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화회관의 터닝포인트로 기대되고 있다. 공연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클래식 수준높은 연주자와 다채로운 명품 무대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3월 14일(목) 오후 7:30 대극장

한국이 사랑하는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부산의 대표 오케스트라 KNN방송교향악단이 함께하는 무대. 지휘자 금난새의 재치있는 해설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 '카르멘'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인문학과 클래식의 만남 '노자와 베토벤-고전감래'

3월 30일(토), 6월 22일(토) 오후 5:00 대극장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했던 최진석 교수와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감의 특별한 시간.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마티네 콘서트'

4월 24일(수), 5월 22일(수), 6월 26일(수),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오전 11:00 중극장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으로 꾸며지는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무대. 매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오전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신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5월 4일(토) 오후 5:00 대극장

음악을 넘어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여성리더로 나아가는 조수미가 지치고 힘겨운 현대인들을 위해 엄마의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힐링의 시간.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으로의 초대'

5월 27일(월) 오후 7:30 챔버홀

라디오 프랑스필 한국인 최초 악장 박지윤을 비롯해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교수 이승원, 서울대학교 교수 김민지, 일본 도쿄필 수석 최영진, 노르웨이 오슬로 필 김홍박 등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실내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조성진&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6월 26일(수) 오후 7:30 대극장

한국이 낳은 슈퍼스타 조성진과 날카로운 직관의 해석, 마에스트로 이반 피셔, 그리고 3년만에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연극/뮤지컬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



거부할 수 없는 명작 뮤지컬 '엘리자벳'

3월 22일(금) 오후 7:30, 23일(토)-24일(일) 오후 2:00, 7:00 대극장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유를 꿈꾸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실존 인물인 엘리자벳 황후의 이야기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매력적인 스토리로 풀어낸 스테디셀러 뮤지컬.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2'

6월 1일(토) 오후 3:00, 7:00 중극장

입센의 대표작 '인형의 집'에서 자아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났던 노라가 15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인 루카스 네이스의 작품으로, 브로드웨이에서 1년간 흥행하고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아우터 크리티컬 서클 어워드' 수상뿐 아니라 토니상에 무려 8개 부문(작품상, 연출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의상상 등)에 노미네이트 된 화제의 작품.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

6월 20일(목)-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6:00 사랑채극장

뉴욕의 한 수녀원에서 발생한 실화를 모티브로 인간과 신의 관계, 신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조명한 연극 '신의 아그네스'. 지난해 극단 공연예술 전위와 전승환의 연출로 무대에 올려져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올해 새롭게 관객과 만난다.

꽃보다 할배의 로맨스 '장수상회'

7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중극장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감동 받는 명품 연극. 강제규 감독의 동명 영화를 연극으로 제작하여 2017년 국립극장 공연 매진사세를 빚어내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웰메이드 연극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작품이 되는 관록의 배우, 이순재, 신구, 손숙, 박정수가 출연, 나이를 불문하고 소년 소녀가 되는 연애초보들의 설렘 가득한 로맨스와 가족에 대한 애뜻함을 그려낸다.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무대 무용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가을운동회'

4월 13일(토) 오후 5:00 중극장

김성한, 류석훈, 노정식, 방년룡, 이인수, 김보람, 장경민, 지경민, 이선태 등 대한민국 최고 현대무용가들이 펼치는 컨템포러리 댄싱 스타들의 무대. 현대무용협동조합의 10개 소속 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With CODA 가을운동회'는 옛날 국민학교 시절 운동회에서 봤던 교장선생님 훈화말씀과 줄다리기, 100m달리기, 이어달리기 등을 모티브로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안겨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8월 8일(목) 오후 7:30, 9일(금) 오후 3:00, 7:30 대극장

새하얀 아이스링크로 변신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차별화된 예술을 선사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은 러시아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와 역동적인 피겨스케이팅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오고 있다.

2019

3.14 thu 7:30pm | 대극장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세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R 60,000 / S 40,000 / A 30,000

3.22 fri-24 sun | 대극장
거부할 수 없는 명작 뮤지컬
<엘리자벳>
fri 7:30pm, sat-sun 2pm, 7pm
V 150,000 / R 130,000
S 90,000 / A 70,000
*티켓 예매 진행 중(매카지 제외)

3.30 | 6.22 sat 5pm | 대극장
인문학과 클래식 만남
노자와 베토벤 - <교향합주>
All Seats 20,000

4.13 sat 5pm | 중극장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가을운동회>
R 40,000 / S 30,000 / A 20,000

4.24 | 5.22 | 6.26
8.28 | 10.2 | 11.20
wed 11am | 중극장
오전에 펼쳐지는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
<마티네 콘서트 시즌5>
All Seats 10,000

5.4 sat 5pm | 대극장
신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V 140,000 / R 120,000
S 90,000 / A 70,000

5.27 mon 7:30pm | 챔버홀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으로의 초대>
All Seats 30,000

6.1 sat 3pm, 7pm | 중극장
'2017 토니상 수상'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2>
R 40,000 / S 30,000 / A 20,000

6.20 thu-22 sat | 사랑채극장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
thu-fri 7:30pm, sat 3pm, 6pm
All Seats 20,000

6.26 wed 7:30pm | 대극장
조성진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V 160,000 / R 130,000
S 100,000 / A 70,000
*티켓 오픈 일정 별도 공지 예정(매카지 제외)

7.5 fri-6 sat | 중극장
꽃보다 할배의 로맨스! <장수상회>
fri 7:30pm, sat 3pm
R 70,000 / S 50,000 / A 30,000

8.8 thu-9 fri | 대극장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thu 7:30pm, fri 3pm, 7:30pm
V 60,000 / R 40,000
S 20,000 / A 10,000

2019 BSCC S/S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
S/S 시즌 프로그램

2019 BSCC 봄/여름 Season

Package

마티네 패키지

- 6개 공연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60,000 > 48,000

노자와베토벤 패키지

- 2개 공연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40,000 > 32,000

명품 패키지

- 명품 공연 3개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명품 1. 신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 명품 2.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으로의 초대>
- 명품 3.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 (V) 230,000 > 184,000 / (R) 190,000 > 152,000 / (S) 140,000 > 112,000 / (A) 110,000 > 88,000

연극 패키지

- 연극 공연 3개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연극 1.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2>
- 연극 2.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
- 연극 3. 꽃보다 할배의 로맨스! <장수상회>
- (R) 130,000 > 104,000 / (S) 100,000 > 80,000 / (A) 70,000 > 56,000

자유 패키지

- 자유 공연 3개 이상 동일등급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자유 공연 5개 이상 동일등급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자유 1.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 자유 2. 컨템포러리 댄싱 스타들의 <가을운동회>
- 자유 3.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으로의 초대>
- 자유 4. 노라가 돌아왔다! <인형의 집, Part 2>
- 자유 5.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
- 자유 6. 꽃보다 할배의 로맨스! <장수상회>
- 자유 7.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 <잠자는 숲속의 공주>
- *'자유 7'은 최고 등급 선택 시 V석 또는 R석, 택 1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 상품은 묶음 상품으로 개별취소는 불가합니다.
- 모든 패키지 상품은 구성공연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화취소만 가능
 -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문의 및 예매

-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공연기획팀 | 051)607-6000(ARS 1번)

시칠리아, 지중해 풍경이 물씬 느껴지는 단막극의 걸작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시칠리아, 산뜻짜의 약혼자 뚜릿두는 옛 애인 로라가 군대 간 사이에 알피오와 결혼했지만 몰래 밀회를 나누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산뜻짜는 뚜릿두에게 애원하지만 요지부동이다. 알피오는 산뜻짜에게 이 사실을 듣고 뚜릿두에게 시비를 걸고, 급기야 결투에 이르러 뚜릿두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그 순간 산뜻짜의 비명 소리와 함께 막이 내린다.

베리즈모(Verismo)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진실이라는 ‘vera’와 이념의 뜻인 ‘ismo’가 붙은 사실주의 오페라를 말한다.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펙의 영화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에 ‘진실의 입(Bocca della Verità: Bocca(입)+della(~의)+Verita(진실))’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끊임없이 원하고 찾는다. 오페라의 주제가 신화-영웅-귀족-부르조아 계급에서 하층민 또는 우리 사회에서 가까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럴 법한 이야기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피에트로 마스카니(Pietro Mascagni, 1800-1900) 작곡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와 루제로 레온카발로(Luggiero Leoncavallo, 1800-1900)의 ‘팔리아치(Pagliacci)’이다. ‘팔리아치’는 지난달 ‘잔니 스키키’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탈리아 ‘코메디아 델 아르테(Commedia dell’arte)’ 양식의 액자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 마스카니와 레온카발로는 이탈리아 출판사 손조노(Sonzogno)사

의 단막극 오페라 작곡 공모에 동시에 응모하게 되고 최종 결선에서 경합하는데 2막으로 구성된 ‘팔리아치’가 규정위반으로 탈락하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최종 당선작이 된다. 사실 두 작품 모두 다 공연 시간이 비슷한데 한 작품은 단막이고 한 작품은 2막 구성이라는 점이 의문이 든다. 마스카니는 단막극의 규정을 지키며 그 중간에 오페라보다 더 유명한, 그 유명한 ‘인터메쵸(Intermezzo)’를 넣게 된다. ‘인터메쵸’는 간주곡이라는 뜻인데 이 곡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다. 그 선율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칠리아의 바람결에 살랑거리는 나뭇가지와 태양 그리고 그 지중해 그 바다의 깊은 색감처럼 내 손 끝에 아른거린다.

2012년, 경주 예술의전당 개관 1주년 기념 오페라 연출을 의뢰받게 된다. 아, 경주! 천년 고도의 고즈넉한 그 도시는 나의 고교시절 수학여행의 추억을 되돌아보게 되는 곳이다. 서울에서 처음 가본 경주의 첫날밤 나는 반별 장기자랑에서 기타와 함께 조하문의 ‘사랑하는 우리를 불러 1등 했고, 그 기쁨의 진율을 뒤로 한 채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저 멀리 들려오는 종소리에 아침 이슬을 맞으며 불국사로 견학을 갔다. 그 곳으로 가는 길에 한옥 스타일의 높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바로 경주 ‘K호텔’이란 곳이였다. 아침 안개에 마치 자금성처럼 보인 그 호텔은 너무 멋있었고, 나는 언젠가 다시 경주에 오게 되면 저곳에 가야지 다짐했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나는 경주에서 연출을 의뢰받게 되었다. 그것도 내가 그렇게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사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이유로 무대에 잘 올려지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은 단막인데 캐스트는 물론 합창단 규모와 무대 셋트가 여타 오페라와 같이 그랜드급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제작비가 부담된다. 게다가 런닝타임이 75분여 밖에 되지 않기에 댕가가 허전한데 그렇다고 두 작품을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또 사실이다. 게다가 테너와 소프라노는 무게감과 중량감이 있는 성악가를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작품을 경주에서, 그것도 ‘카

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한 작품만을 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나!!!

연출의뢰가 왔을 때 주최측에서 “오페라 제작을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이라 잘 부탁드린다”고 먼저 언급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개런티보다 꼭 불곡사 입구에 있는 그 호텔에서 장기간 숙박을 하는게 가장 큰 조건이라고 했다.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과거 그 종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난 흥분하기 시작했다. 담당자는 차분하면서도 미소가 보일 만큼의 대답으로 “네, 그정도는 저희가 헤드릴 수 있어요.” 하는게 아닌가? 우와! 드디어 내가 하고픈 작품과 그곳이 날 손짓하는 그 환상이 보이며 작품에 관한 영감이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전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과 포지션, 그리고 셋트 구성으로 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서곡부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극과 음악의 일치까지..

한국을 비롯해 유럽 극장에서 맹활약중인 테너 이병삼(대구 가톨릭대 교수)과 2009년 나와 '투란도트'에서 이미 작업을 같이 한 세계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나 즈베타코바(Mariana Zvetkova)까지 투입되었고, 아울러 부산 출신의 테너 김지호, 대구 출신의 소프라노 김상은까지 이 작품을 위해 경주에 모였다. 그야말로 신나는 '경주의 달밤'인 셈이다. 첫날 내려가자마자 극장에서 신나게 연습을 하다가 소프라노 마리아나에게 “너는 어디서 묵게 되니?”하고 물었더니 보문단지란다. 보문단지? 들어본 것 같기는 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다. 마침내 연습이 끝나고, 숙소로 길을 가다 잘못 들어 보문단지를 지나게 되었다. ‘우와~참 좋은 관광단지네, 비내리는 호수 광경도 볼만하네’하며 내가 묵을 곳에 대한 기대로 그곳으로 가는데, ‘음...이 외진 느낌은 뭐지?’ 그런데 호텔 진입로에 보이는 골프장이 보여 안도의 한숨을 지었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허름한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뽀사!’ 그래서 내가 호텔 얘기 할 때 아무 말 없이 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스위트룸-결국 끝까지 혼자 있었지만-은 사용 안한지 오래 되서 그 쾌쾌한 냄새와 낡은 소파와 침대들은 둘째치고, 그날 폭우가 쏟아졌는지 뜯겨진 문 샷시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마치 방에

홍수가 난 것 같았다. 지금은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좋게 변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그 직전이었나 보다. 예구구... 엄청나게 큰 욕실도 인상적이었고 큰 방인 것은 좋았으나, 그야말로 안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숙소에 대한 집념과 콤플렉스가 생기게 되었고,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이 들게 되었다.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했는데, 잠시 후 올라온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리골레토’의 3막, 질다의 죽음 장면처럼 폭풍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날 아침 서울에서 직접 운전해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연습까지 하고 호텔로 오니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고, 그대로 소파에서 벨 소리로 못 들은채 잠이 들고 말았다.

땡~땡~땡... 그 다음날, 폭풍우도 사라지고 나뭇가지에 새 소리가 들리며 아침이 밝아오는데 저 나무와 숲 너머에서 땡그렁 하는 종소리가 들려 온다.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포근해서 온방이 불바다가 되고, 가재도구와 내 짐의 일부가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 종소리로 인해 모든 불만이 사라졌다. 이윽고, 호텔에서 내게 죄송하다고 하며 방을 바꿔 준다고 했지만, 난 젖은 것들만 교환해주고, 문틈 사이 새는 것만 해결해주면, 이 방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방 키를 맡기고 콧노래를 부르며 극장에 연습하러 갔다. ‘이의주, 너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시설보다도 그곳의 그 종소리 하나만으로도 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었고, 그 소리를 나의 첫 작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연출에 고스란히 잘 녹여내면서 아주 값진 경험이 되었다. 소리는 참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의 선물이고, 음악가는 그 소리에서 주는 감동을 만들어 내는 예술가이다. 지금도 그 종소리가 내 귓가에 스치운다.(feat.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피에트로 마스카니

글 김성민 부산대학교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교육팀장
 사진 이상호 유로자전거나라 가이드



- 1 루브르궁은 본래 왕궁이었던 것을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2 루브르 박물관과 튀일리 궁전 사이에 있는 튀일리 정원
- 3 노을지는 파리의 센 강변
- 4 루브르 박물관 야경



파리, 루브르 박물관 자신의 욕망만을 좇은 자크 루이 다비드

1919년 그리고 이완용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괴로운 존재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비교적 일찍 서양문물을 접하고 외부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일본은 내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부의 적을 매개체로 전체를 단결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반면 조선의 지도층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좁은 내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였고 결국 구한말 일본에게 국권을 찬탈당하고 그들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다가 그들의 이념대결로 분단이라는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 내부의 문제도 성찰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역사의 반복을 겪지 않도록 언제나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전해지는 상처보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내부의 상처가 더 크고 쓰린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한말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고 같은 동포들에게 큰 아픔을 남긴 친일파들은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다. 사실 을사조약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이완용은 일본에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다. 친일파 이전에는 친미파였으니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든지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나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1825) 역시 이완용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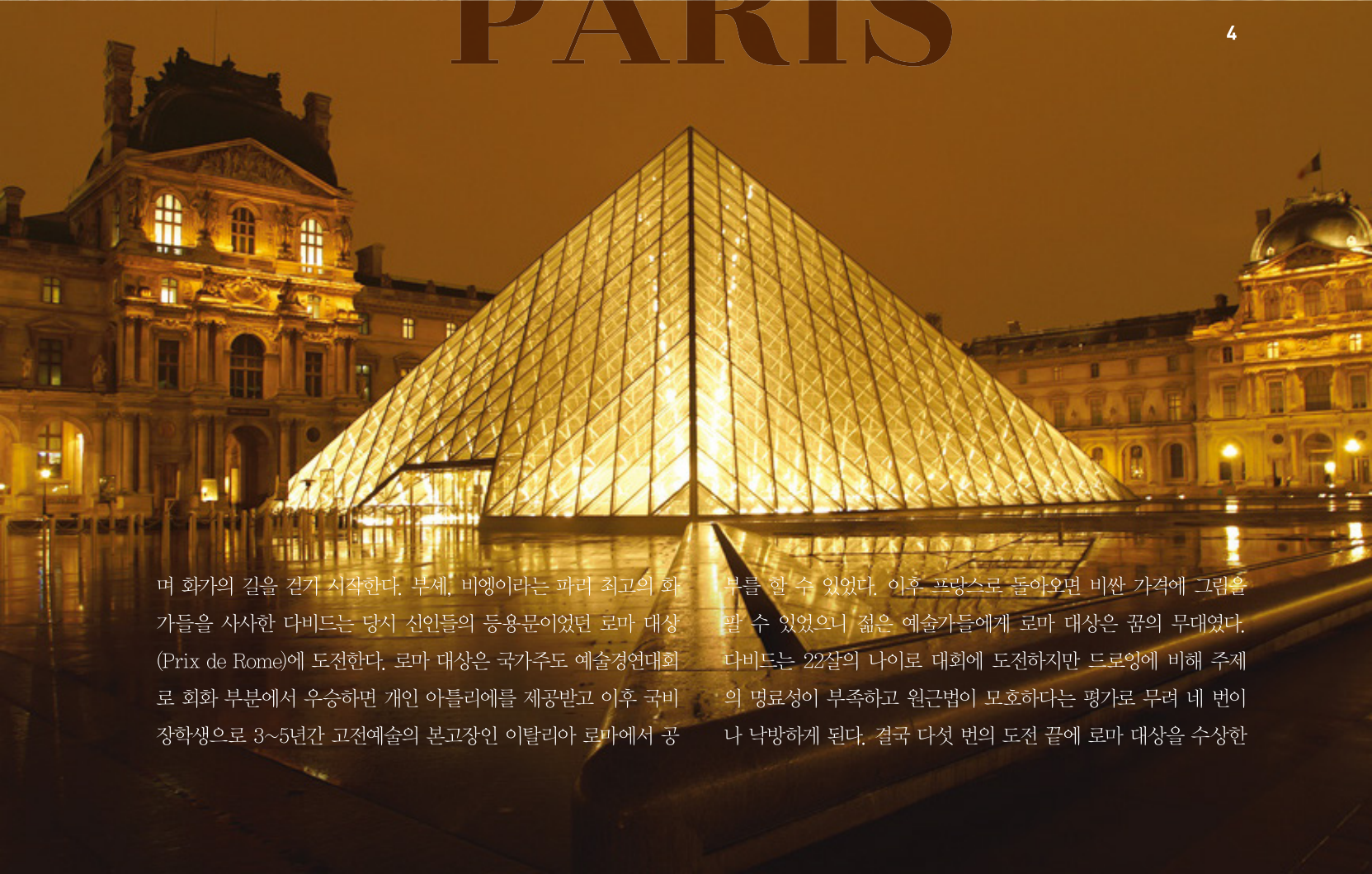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다비드는 9살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지만 외삼촌과 이모부의 보살핌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으



PARIS

3

4



며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부세, 비앵이라는 파리 최고의 화가들을 사사한 다비드는 당시 신인들의 등용문이었던 로마 대상(Prix de Rome)에 도전한다. 로마 대상은 국가주도 예술경연대회로 회화 부분에서 우승하면 개인 아틀리에를 제공받고 이후 국비장학생으로 3~5년간 고전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

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프랑스로 돌아오면 비싼 가격에 그림을 팔 수 있었으니 젊은 예술가들에게 로마 대상은 꿈의 무대였다. 다비드는 22살의 나이로 대회에 도전하지만 드로잉에 비해 주제의 명료성이 부족하고 원근법이 모호하다는 평가로 무려 네 번이나 낙방하게 된다. 결국 다섯 번의 도전 끝에 로마 대상을 수상한

유럽 박물관 기행

다비드는 이후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원근법과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를 공부하고 파리로 돌아와 출세기도를 달리게 된다. 당시 프랑스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로코코 양식을 벗어나 고대 로마와 그리스 예술의 단순함을 추구하는 신고전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다비드 역시 로마 유학 이후 적극적으로 신고전주의 양식의 화가가 된다.

프랑스 혁명과 인간 다비드

다비드는 자신을 로마 대상에서 낙방시킨 아카데미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30대가 된 그는 파리 아카데미의 정회원이 되었는데 이후 명성을 얻은 다비드는 로마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교수들은 다비드가 어리다는 이유로(당시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그의 지원을 거절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비드는 더욱 노골적으로 아카데미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이후 그의 작업실은 아카데미에 반감을 가진 회원들과 학생들의 모임장소로 변하게 된다.) 이러던 중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기존의 체제가 붕괴되자 다비드는 과격한 혁명정부였던 자코뱅 당에 가입하고 정부에 요청을 하여 평소 악감정이 많았던 아카데미를 폐쇄시켜버린다. 그리고 다비드는 새롭게 만든 예술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혁명은 일으키는 것보다 수습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당시 혁명정부를 이끌던 자코뱅 당은 대의명분뿐만 아니라 다비드와 같이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욕망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였는데 결국 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게 된다. 다비드 역시 반대파에 의해 공개 재판

5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6 그림 속 싸움을 중재하는 여인들





7 ROMA가 적혀있는 로물루스의 방패. 거울을 통해 보면 사랑(AMOR)이 된다 8 그림 속 다비드의 서명 9-10-11 박물관 내부

장에 서게 되었는데 온갖 비굴한 변명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5개월간 감옥에 갇히게 된다. 석방된 후 다비드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형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The Intervention of the Sabine Women, 1799)'라는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은 고대 로마시대 로물루스가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이웃 부족이었던 사비니족의 여인들을 납치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사비니 부족장 타티우스가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미 사비니 여인들은 로물루스 사람들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출산했으니 자신들의 남편들과 아버지들의 싸움을 막고자 전쟁터 한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모습이다.

의뢰자 없이 그림을 그렸던 다비드는 입장료를 받고 작품을 공개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유료 개인전의 효시라 할 수 있겠다. 다비드는 감상자를 위한 카탈로그를 준비했고 작품 맞은편에 거대한 거울을 배치하여 거울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라고 설명했다. 즉 감상자를 거울과 작품 사이에 위치시켜 감상자가 작품 속으로 들어갔다고 느끼게끔 말이다.

이 작품의 배경을 보면 거대한 성이 있는데 사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이런 형태의 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성이 10년 전 혁명 당시 시민들이 습격했던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거울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게 한 다비드는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빌려 혁명 상태로 인해, 시민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지금의 프랑스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로물루스의 방패를 보면 로마(ROMA)라는 글자가 새

겨져 있는데 거울을 통해 바라보면 아모르(AMOR), 즉 사랑이란 단어가 된다. 즉 이제 싸움을 중지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화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후 나폴레옹이라는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했고 그림을 통해 사랑과 화해를 주장했던 화가 다비드는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좇아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다짐한다. 결국 그는 나폴레옹 정권에서 가장 잘나가는 화가가 되었으나 이후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노년의 다비드는 쓸쓸히 벨기에로 망명하여 77세의 나이로 타국에서 사망하게 된다.

2019년 3월

100년 전 조선이 일제 식민지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 부패한 지도층? 무능한 백성들? 모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야만적으로 이웃나라를 공격한 일본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개인의 욕망만을 좇은 이완용과 같은 무리들 때문이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 같은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크 루이 다비드와 같이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면 아픈 역사는 계속 반복되리라 생각한다.

2019년 3월, 100년 전 3월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며 가슴의 울림과 냉철한 이성의 판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민족의 최대 명절 설 연휴가 끝나던 2월 둘째 주 금요일,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 1 제방 망원경을 통해 주남저수지를 둘러보는 정기회원
- 2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 3 망원경 너머 보이는 겨울 철새





4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 5 주남저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생태 해설사

2월의 테마여행지는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 불리는 창원 주남저수지.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는 매년 겨울, 5만마리 가까운 철새가 찾아오면서 탐조객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를 비롯해 세계적인 희귀조로 알려진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205-2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호) 등 230여종이 넘는 다양한 철새들이 11월경이면 월동을 위해 주남저수지를 찾아와 곡예비행을 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주남저수지는 현재 랍사르협약의 등록습지 기준에 상회하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이자 두루미류의 중간 기착지 및 재두루미의 월동지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시간 여를 달려 주남저수지에 도착한 정기회원들은 지난 2008년 제10회 랍사르총회의 창원 개최에 맞추어 랍사르협약(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 자원으로 규정해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

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개관한 랍사르문화관을 방문했다. 회원들은 생태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영상실에서 주남저수지에 관한 홍보영상을 관람한 후 랍사르협약의 역사와 주요내용을 전시하고 있는 랍사르문화관과 인근에 자리한 생태학습관을 둘러본 후 제방에 조성된 전망대에 올라 직접 탐조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한 때 주남저수지의 겨울 하늘을 까맣게 수놓았으나 최근 들어 발길이 뜸했던 가창오리 8,000여 마리가 오랜만에 주남저수지를 찾아 탐조객들을 설레게 했다. 지금은 겨울이 끝나가면서 이 곳을 찾았던 겨울철새들은 고향인 시베리아로 떠나고 현재 주남저수지에는 대략 3,000여 마리의 겨울철새들이 남아 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고 있다.

짧은 시간이나마 철새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던 정기회원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빗돌배기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감미로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빗돌배기마을은 그 이름처럼 달콤한 단감과 시원한 꿀수박으로 유명한 농촌체험마을로, 마을의 대표상

테마가 있는 여행



6·7 삼색절편 만들기 체험을 하는 정기회원들

8 김해의 특산물인 산딸기로 만든 와인을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는 김해와인동굴



품인 단감, 수박 뿐 아니라 딸기, 멜론, 토마토 등 다양한 제철과일 수확체험과 벼 교실 논 학교, 단감파이 만들기, 전기차 싱싱투어, 생태학습 관찰하기 등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빛돌배기 마을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농촌체험에 앞서 마을에서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차린 맛있는 한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마을의 또다른 명물인 전기차를 타고 마을을 한바퀴 돌아본 회원들은 체험지도사와 함께 삼색절편 만들기에 나섰다. 치자, 백련초로 곱게 물들인 색색깔의 절편에 회원들의 웃음꽃도 함께 피어난다. 마을주민들이 제공한 바로 탄 달콤한 딸기맛에 회원들의 즐거움도 점점 커져만 간다.

창원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짧은 여정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김해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려진 김해낙동강레일파크에 잠시 들렀다. 삼랑진에서 김해로 넘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경전선 철도를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킨 김해낙동강레일파크는 낙동강을 철교로 횡단하는 레일바이크와 터널을 활용해 이색 볼거리를 만든 와인동굴, 열차 2량을 개조한 열차카페, 철교 위에서 주변 풍경을 조망하는 전망대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테마파크다. 특히 국내에 폐선된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여러 개 있지만 강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는 김해낙동강레일파크가 유일하다. 폐쇄된 생립터널은 와인동굴로 변신하면서 김해의 특산물인 산딸기로 만든 와인을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다.

정기회원들은 아쉽지만 레일바이크 체험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와인동굴 관람에 나섰다. 총 485m 길이의 와인동굴에는 와인저장고와 LED 빛터널, 베리의 산딸기마을, 와인판매 및 시음장, 와인전시장 등 다섯 가지 테마에 따라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마치 거대한 오크통 안에 들어온 듯한 내부 모습에 트릭아트, 산딸기·와인 관련 각종 아기자기한 조형물, 형형색색의 조명이 더해져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와인 체험공간에서는 직접 와인을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다. 낙동강레일파크는 지난 2016년 4월 개장한 후 지난해 11월, 2년 6개월여 만에 관람객 100만명이 다녀가는 등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김해의 핫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한껏 여유로움을 만끽했던 2월 테마여행. 자연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만큼이나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4.12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벚꽃 가득한 진해로 떠나는 근대문화투어

벚꽃 피는 4월, 근대 100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군항의 도시 진해로 떠나는 진해 근대문화투어.

도심 전체가 박물관이자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는 진해 시가지 근대문화유산을 돌아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부대 영내 탐방이 가능한 군항문화탐방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일정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09:30 진해 해군의 집 도착
군항문화탐방
- 12:00 중식
- 13:00 진해근대문화역사길 탐방
- 16:00 부산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양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3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 강성미(북구 만덕대로) | 서종수(남구 황령대로) | 하순숙(해운대구 해운대로) |
| 권춘희(남구 진남로) | 송만오(남구 석포로) | 한원우(연제구 법원로) |
| 김신애(남구 분포로) | 조경은(남구 오륙도로) | |
| 김정혜(수영구 광안해변로) | 전소희(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

기존 회원

- | | | |
|-----------------|-----------------|-----------------|
| 김경애(남구 유엔로) |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 정지영(동래구 사직로) |
| 김종출(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신성철(북구 덕천로) | 최은정(해운대구 수영강변로) |
| 박경자(수영구 황령대로) | 이정희(남구 석포로) | |
| 박정순(수영구 구락로) | 이현주(해운대구 센텀중앙로) | |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미취학 아동을 위한

2019 춤추는 동화

“너를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2019. 3. 26(화) ~ 4. 5(금)

오전 11:00 (토,일 제외)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1,000원

주최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 www.bscc.or.kr

문의 | 607-3121-2 (단체관람 우선)

프리뷰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와 해설, KNN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윤정빈, 바리톤 성승욱,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이 협연자로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자 금난새는 지난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다. 국내에서는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거쳐 1998년 '벤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으며,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라움아트센터 예술감독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 구성된 KNN방송교향악단은 지난 2016년 4월, 지역 방송 최초로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 클래식음악의 장을 넓혀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시작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교향악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NN방송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가 3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으로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야 이 거리의 해결사',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에 이어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제1번 작품 20',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 4악장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협연을 맡은 소프라노 윤정빈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Bologna 'G.B.Martini'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가수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영국 왕립음악원에 한국인 최초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수석 졸업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상을 수상한 바리톤 성승욱은 리처드 루이스 컴퍼티션 1위, 루드밀라 러시아인 송 컴퍼티션 1위, 블리스 부에스트 오페라 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금호영재 독주회로 데뷔한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은 2018년 제25회 KBS 한전 음악콩쿠르 대상, INTERNATIONAL FRITZ KREISLER COMPETITION 'Special Award'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3학년에 재학중이다.

가족음악회

일시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여인의 사랑과 생애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부산MBC 손지현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은 이번 무대는 지난 2017년, 순수한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인의 사랑'(166회 정기)에 이은 슈만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특히 화이트데이를 맞아 공연장을 찾은 연인들에게 사랑을 담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부산시립합창단은 앞서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가진 '사랑의 주제로 노래하는 브런치 콘서트'에서 '시인의 사랑' 전곡을 들려준 바 있다.

연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작곡가 슈만이 그 해만 무려 183편의 가곡을 작곡하여 '노래의 해'라고도 불리는 1840년 작곡된 작품이다. 1840년은 슈만의 생애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해였다. 장인의 반대로 인해 힘겨운 사랑을 이어가던 클라라 슈만과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된 슈만은 1840년 7월, 법원으로부터 결혼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작곡하기 시작했다.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한 여인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과 출산을 거친 뒤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비터마이어 시대의 낭만주의 양식을 대표하는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다. 오로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인의 심리를 포착한 총 8

부산시립합창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R. Schumann series II '여인의 사랑과 생애'

부산시립합창단이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의 연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생애' 전곡무대로 2019년 첫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곡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여인의 생애를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화성으로 풀어놓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1부 '여인의 사랑과 생애'에 이어 2부에서는 'In ecclesiis benedicite Domino, Alleuia!'(국현 곡), 'Little man in a hurry'(Eric Whitacre 곡) 등 현대 합창곡과 우리민요를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태평가', '신고산타령', 그리고 봄을 노래한 '범집'(조혜영 곡), '목련화'(김동진 곡), '금잔디'(조혜영 곡),

'제비처럼'(조혜영 편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류재환(오보에), 우현수(콘트라베이스), 김영훈(타악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강은주(대금), 지영재(피리)가 출연, 다양한 악기 선율과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9월에는 슈만의 부인이자 당대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클라라 슈만의 이야기를 합창으로 들려주는 슈만 시리즈 세 번째 무대 '클라라 슈만의 일기'(9월 26일, 176회 정기)가 펼쳐진다.

일시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핑크퐁랜드



대표작인 동요 '상어가족'으로 유명한 '핑크퐁'은 어린이 교육용 앱에서 시작된 애니메이션, 동요, 게임 등 다채로운 키즈 콘텐츠 브랜드로, 최근 '상어가족' 영어 콘텐츠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32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가요가 아닌 동요가 빌보드에 진입한 것은 최초로,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7주 연속 2위)과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아이돌'(11위)에 이어 역

대 세 번째 최고 성적을 남겼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유튜브 채널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도 했다. '상어가족'은 아기 상어를 비롯한 상어가족을 차례로 소개하는 가사와 반복적인 리듬으로 유아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며 그동안 국악, 댄스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핑크퐁랜드-황금별을 찾아라'는 '핑크퐁과 상어가족',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에 이은 세 번째 뮤지컬 작품으로, 꿈과 환상의 나라 '핑크퐁랜드'로 떠나는 핑크퐁과 튼튼쌤의 여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용기를 심어준다.

핑크퐁과 튼튼쌤이 신나게 반겨주는 핑크퐁 랜드에 무제한 이용권인 '황금별 티켓'에 당첨된 아기상어가 놀러온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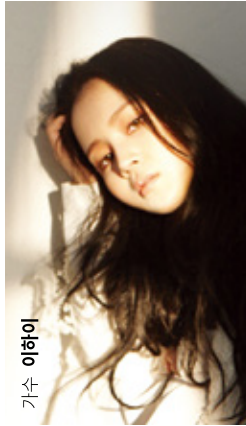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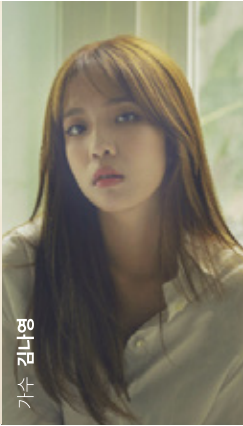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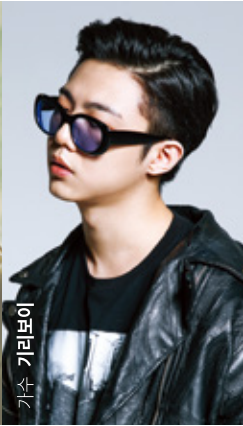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패밀리뮤지컬
'핑크퐁랜드-
황금별을 찾아라'

—
'아기상어 뚜루뚜루'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핑크퐁이
가족뮤지컬로 부산을 찾는다.

만 이 꿈과 환상의 나라인 핑크퐁랜드에는 핑크퐁과 튼튼쌤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검은별 나라'가 있었는데, 하필 지도에 까맣게 표시된 '검은별 나라'에 꼭 가고만 싶은 우리의 아기상어. 핑크퐁랜드 안에 숨겨진 황금별 5개를 모으면 마음속 간절한 소원이 이뤄진다던데... 과연 아기상어는 핑크퐁, 튼튼쌤과 함께 소원인 검은별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날아라, 박씨!'로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수상에 빛나는 작가 정준과 뮤지컬 '김종욱 찾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총각네 야채가게' 등 다수 작품에 참여한 김혜성 음악감독,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협력안무, 평창 페럴 올림픽 아트 페스타 안무상을 수상한 신선호가 연출과 안무를 맡아 탄탄한 스토리와 세련된 음악, 완성도 높은 무대로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핑크퐁과 튼튼쌤의 울동콘서트'와 유튜브, IPTV의 '튼튼쌤의 울동체조교실'로 유명한 튼튼쌤을 무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또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구현한 미디어 퍼포먼스 LED 영상과 무대 활용으로 환상적인 핑크퐁랜드를 구현하며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입체감 있고 활기찬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3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입장료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20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가수
이하이가수
남태현가수
김나영가수
김나영가수
기리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벚꽃스캔들'에서는 '실내형 페스티벌'이라는 컨셉으로, 독보적이고 세련된 저음역대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하이를 비롯해 풍부한 감정선과 특유의 미성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남태현, 최근 TV프로그램 '더 퀘'를 통해 조명받고 있는 인디 음악의 새로운 강자 오웬, 차세대 발라드 보컬리스트로 주목받으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감동을 주는 김나영, 힙합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실험적 색채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기리보이 등 봄의 서정에 잘 어울리는 다양한 색깔의 아티스트들이 출연, 새봄에 어울리는 신선한 무대를 선사한다.

TV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 시즌 1에 출연,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 이하이는 가수 데뷔와 동시에 데뷔곡 '1, 2, 3, 4'로 음원 차트 올킬, 25일간 멜론 1위 장기 집권이라는 신인으로서는 경악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이하이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R&B, 소울에 적합한 목소리로 매력적인 보이스와 리듬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돌그룹 '위너(WINNER)'의 전 멤버이자 밴드 '사우스 클럽'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남태현은 고음부터 저음까지의 음역대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벚꽃스캔들-부산

벚꽃이 피는 봄의 설레는 감성을
채워줄 특별한 콘서트 '벚꽃스캔들'
부산공연이 3월 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우 넓으며, 솔로 데뷔 후에는 재즈 블루스와 락 스타일의 음악뿐 아니라 발라드까지 전 앨범을 직접 제작하며 음악세계를 넓혀오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신 개념 음악프로그램 '더퀘'에 출연해 대중적인 인지도와 화제를 한몸에 받았던 오웬은 최근 발표한 싱글 '미지근한 밤'이 발매 후 모든 음원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는 등 음원 강자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정키의 노래 '홀로'

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공식 데뷔했으나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TV 오디션프로그램인 '슈퍼스타K5'에 출연한 후 주목받기 시작한 김나영은 특히 '복면가왕'에 출연, 44차 경연의 우승자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곱상한 외모와 도시적인 스타일의 음악으로 어필하는 차세대 힙합 뮤지션 '기리보이'는 힙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독특한 가사센스가 특히 일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들려주는 그들의 대표곡으로, 5인 5색의 특별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벚꽃스캔들

일시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의** 에이엠엔터프라이즈 1899-0042

입장료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20% 할인)

프리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유를 꿈꾸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실존 인물인 엘리자벳 황후의 이야기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매혹적인 스토리로 풀어낸 뮤지컬 ‘엘리자벳’은 지난 1992년 오스트리아에서 초연된 후 지난 27년 동안 총 12개국에서 1,100만 명의 관객들이 관람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모차르트’, ‘레베카’를 만든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 콤비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서사, 음악, 무대예술의 3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깊이 있는 통찰력과 거침없는 상상력을 갖춘 독보적 스토리텔러인 미하엘 쿤체는 스위스 정부가 지난 70년간 기밀문서로 보관했던 엘리자벳의 일기장과 ‘엘리자벳이 합스부르크 왕국에 죽음을 데려왔다는 오스트리아의 민담에서 영감을 받아 ‘죽음(Der Tod)’과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황후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섬세하게 캐릭터의 감정선을 파고드는 21세기 최고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는 자유를 꿈꿨던 황후의 감정선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 ‘나는 나만의 것(Ich Gehor Nur Mir)’과 ‘죽음(Der Tod)’의 치명적인 매력을 더욱 극대화하는 ‘마지막 춤(Der letzte Tanz)’, 멸망 직전에 놓인 합스부르크 시대를 그려낸 ‘키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엘리자벳’

—
죽음과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황후 엘리자벳이 부산을 찾는다.

(Kitsch), ‘그림자는 길어지고(Die Schatten werden langer)’ 등 서사에 깊이를 더하는 매혹적인 넘버들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1400여 개가 넘는 방이 있었을 정도로 성대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궁전을 재현,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완성했으며 황실의 결혼식, 무도회, 황제의 대관식 등 화려한 장면들은 현대적인 영상과 조

명을 활용해 세련된 무대를 보여 준다. 2015년 이후 3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번 무대에서는 보다 화려해진 캐스팅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엘리자벳’ 역에는 초연부터 매 시즌 캐릭터와의 완벽한 싱크로율로 열연해온 옥주현, 단아하고 청순한 외모와 폭넓은 음역대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김소현, 탁월한 무대 장악력과 음악성으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신영숙이, ‘죽음’ 역에는 초연 당시 같은 역으로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돌 스타 김준수와 배우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박형식, 정택운이 섹시하면서도 치명적인 옴므파탈의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엘리자벳

일시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ARS 1번)
입장료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단 22일 공연은 제외)

봄의 소리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1984년 5월 23일 창단 후 지난 25년간 전통음악 계승 및 창작음악 개발에 앞장서 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는 무대로,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현재 전문연주자 72명으로 구성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후 현재까지 199회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기획연주회와 덴마크, 터키,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호주 등 해외초청연주회를 통해 전통음악의 예술적 향상과 대중화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고 허경미 무용단 무무 대표 허경미, 국악계의 아이돌 스타 송소희가 출연, 신명넘치는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0회 무대를 축하한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박범훈 곡 국악관현악 '춘무'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봄의 흥을 허경미의 춤사위로 풀어낸다. 춤꾼 허경미는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을 역임했으며 제20회 부산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어서는 가사인 '매화가를 모티브로 춘설 속 피어나는 매화를 통해 봄의 정취를 그려낸 국악관현악 '매화, 봄향기 속으로(계성원 곡)'와 지난 200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0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봄의 소리'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창작국악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봄의 소리'가 3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된 국악관현악 '청춘도(김만석 곡)'를 들려준다. 뛰어난 실력과 외모로 국악계를 대표하는 젊은 소리꾼으로 사랑받고 있는 송소희와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경기민요 '매화타령, 태평가, 경북궁타령'으로 관객과 만난다. 어려서부터 천부적 재능으로 '소녀 명창'이라 불리었던 송소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TV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 '창부타령'을 불러 전국적

으로 유명해졌다. 송소희는 그동안 미국 뉴저지 단독콘서트, 소치 페스티벌 폐막식,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 UN의 날 아리랑 판타지(UN본부), 미국 카네기홀 '뉴욕아리랑콘서트' 등 국제적인 무대 외에도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국악한마당, 복면가왕, 판타스틱 듀오 등 TV 출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국악과에서 경기민요를 전공하며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박범훈 곡 '관현악을 위한 뱃노래'. 지난 1994년 한·중·일 3국의 악기를 중심으로 창단된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연주회를 위해서 작곡된 곡으로, 경기민요 뱃노래를 테마로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뜻을 달고 세계를 향하여 출범하는 분위기를 담고 있다.

일시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국악관현악단 607-3124

프리뷰

2019 우리 아이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되는 '부산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곡으로 음악을 통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다.

현재 IF양상블 지휘자, HOW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이요섭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극단 홍보담당, 부산연극제작소 동내 대표로 있는 박지현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답고 친숙한 선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극인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를 들려준다.

어린이들을 클래식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줄 지휘자 이요섭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지휘과를 졸업하고 대구MBC교향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음악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첫 곡인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Eine kleine Nachtmusik)'는 독일어로 '밤의 세레나데'라는 뜻으로, 원 제목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제13번 사장조 K.525'이다.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클래식 음악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하고 널리 연주되는 곡으로 원래 현악4중주를 위해 쓰여졌으나 각 악기별로 여러 명이 연주하는 오케스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부산시향의 2019 우리 아이 음악회

봄의 신록이 가득한 3월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평소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었던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 '2019 우리 아이 음악회'를 마련한다.

트라 형태로도 자주 연주된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는 16년간의 프랑스 망명 생활을 끝내고 러시아로 귀국한 프로코피에프가 이듬해인 1936년, 모스크바 중앙 어린이극장의 의뢰로 작곡한 곡으로, 프로코피에프가 직접 대본을 쓰고 곡을 붙인 작품이다. 프로코피에프는 이 곡에

서 용감한 소년 피터는 현악 5부 합주로, 작은새는 플루트, 오리는 오보에, 고양이는 클라리넷, 완고한 할아버지는 바순, 늑대는 3개의 호른, 늑대 잡는 사냥꾼의 총소리는 팀파니와 큰북으로 묘사하는 등 등장인물마다 그의 성격에 맞는 악기를 각각 지정하면서 관객들이 연주를 통해 악기별 다양한 매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악기의 특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편, 이번 무대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어린이 동반시 50%, 다자녀가정은 6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다자녀가정·임산부 60%, 어린이동반 관람시 50% 할인, 국가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1인 2매 무료)



2017년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이어 2018년 '고주망태(孤酒忘態)로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했던 최진석 교수와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올해도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노자와 베토벤'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수차례 무대를 통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을 통해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왔다. 2019년 올해 새롭게 만나는 주제는 '고진감래(苦進感來)'. 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苦盡甘來)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고통 고(苦), 나아가 갈 진(進), 감동 감(感)·올 래(來)'의 뜻을 담아 '고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 거기에 감동을 더하면,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라는 화두로 관객과 사유를 공유한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인문·과학·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健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노자와 베토벤'이 2019년 '고진감래(苦進感來)'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

세계를 무대로 빛나는 예술성과 이 지적인 연주로 성실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은 현재 한국지휘자협회 부회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있으며, 지난해 인류의 우정과 협력을 기치로 유라시아 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EOPO)를 조직,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들과 부산출신 아티스트들의 미래 에너지에 힘을 쏟고 있다.

3월 30일 첫 무대에서는 '고진(苦進)'을 주제로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주역으로 활동하며 2018년 대한민국 테너 최우수예술가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부산 출신 성악가 전병호가 출연, 과거 힘든 시절을 견디고 오늘을 맞을 수 있게 했던 러시아 국민시인 푸시킨의 시에 곡을 붙인 김효근 작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비롯해 칠레아의 오페라 '아를르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작품 55 '영웅',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멘델스존 '한 여름 밤의 꿈' 중 '결혼행진곡', 주베 '경기병 서곡'을 들려준다.

이어서 6월 22일 열리는 '고진감래' 중 '감래(感來)' 무대에서는 하프의 요정 황세희와 함께 스페인의 맹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고진감래

일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ARS 1번)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9년 무대가 3월 6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 ◇ 3월 6일(수)-2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 전석 2만원(통합티켓 경연작 전 작품 8만원, 경연작 5작품 4만원)
- ◇ 부산연극협회(645-3759, www.bstheater.or.kr)



올해로 37회를 맞는 2019 부산연극제는 2019 대한민국연극제 부산지역 예선을 겸한 무대로, 지난해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누리에를 비롯해 극단 에저또, 극단 배우창고,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극단 맥, 극단 이야기, 극연구집단 시나위, 극단 더블스테이지, 극단 여정, 극단 세진 등 10개 극단이 참가, 본선 참가 티켓을 두고 치열한 경연을 펼친다. 특히 그동안 ‘창작 초연’으로 제한했던 참가조건이 ‘개막 3년 이내 부산연극제 출품작 및 1년 이내 부산지역에서 공연된 작품을 제외한 국내 작가의 창작극’으로 완화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3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간의 일정에 들어가는 올해 부산연극제에서는 초연작 5편을 비롯해 총 10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초연작으로는 ‘봄봄’,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이 1935년에 발표한 동명의 단편소설을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극단 이야기의 ‘노다지’를 비롯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극연구집단 시나위의 ‘귀가’, 욕망을 소재로 영상을 활용한 융복합 창작메타연극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클로즈업’, 자갈치로 시집 온 몽골아가씨와 트러블메이커 박복녀의 좌충우돌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묻는 극단 여정의 ‘복녀씨 이야기’, 낯선 남자가 찾아오면서 새로운 운명과 맞이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극단 세진의 ‘스트랜딩’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연극제를 통해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나는 작품으로는 부산의 상징 ‘영도다리’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애끓는 모성애로 그려낸 극단 에저또의 ‘순이’, 건강한 빵만을 고집했던 제빵사 주인공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 맞서 지켜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극단 배우창고의 ‘강석봉 베이커리’, 조선 사내를 사랑했다가 버림받은 일본 여인의 비극적 삶을 그린 극단 누리에의 ‘여자 이발사’, 제10회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인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썬사인의 전사들’, 3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를 그린 극단 맥 ‘이녀 머리에선 향기가 나네’ 등 다채로운 작품이다. 올해 연극제에서도 각 극단의 첫째 날 공연이 끝난 후에는 관객들이 작가 및 연출가, 배우들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2019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3월 6일 저녁 7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상 및 폐막식은 3월 24일 저녁 6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 경연 참가작

극단 에저또 '순이' **개막작**

3월 6일(수)-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한국전쟁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목격해온 영도다리. 연극 '순이'는 부산의 상징 '영도다리'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애끓는 모성애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 | 심상교, 김지연 ▪ 연출 | 최재민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3월 9일(토)-10일(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주제과'라는 이름으로 16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 제빵사 강석봉. 그의 가게 앞에 들어선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는 강석봉을 통해 우둔해보이지만 우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여다본다.

▪ 작, 연출 | 박훈영

극단 이야기 '노다지'

3월 10일(일) 오후 6:00, 11일(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930년대 해학적이면서도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낸 소설을 발표했던 소설가 김유정이 1935년 발표한 단편소설 '노다지'를 각색한 국내 초연무대. '노다지'라는 어원을 낳은 세계 3대 금광이었던 운산금광을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을 치열하게 그린 박진감 넘치는 작품이다.



▪ 원작 | 김유정 ▪ 작 | 남해진 ▪ 연출 | 박현형

극단 누리에 '여자이발사'

3월 12일(화)-1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역사의 격랑에 휩쓸린 한 '일본인 처'의 비운의 삶을 그린 전성태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무대화한 '여자 이발사'. 한일 두 나라 모두에게 버려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 작 | 전성태 ▪ 각색 | 김경미, 강성우 ▪ 연출 | 강성우

극연구집단 시나위 '귀가'

3월 13일(수)-14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인공 태준의 회상 속에서 펼쳐지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통해 가족과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연극 '귀가'. 특별한 거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기에 더 많은 울림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 작 | 김지훈 ▪ 연출 | 반필우

극단 더블스테이지 '클로즈업'

3월 16일(토)-17일(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욕망을 소재로 영상을 활용한 배우의 심리표현을 담아낸 융복합 창작 메타연극 '클로즈업'. 메타드라마 형식의, 연기와 반연기를 넘나드는 상황들은 현대연극의 융복합적 시도와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 작 | 김지숙 ▪ 연출 | 김등민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뽀샤인의 전사들'

3월 19일(화)-20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뽀샤의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은 베스트셀러 작가 승우는 절필하고 피폐한 삶을 이어가던 중 꿈에 나타난 딸의 부탁으로 다시 글을 쓰기로 결심한다. 1940년부터 2020년, 만주에서 제주까지 기어코 우리를 찾아온 갇혀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는데....



▪ 작 | 김은성 ▪ 연출 | 최용혁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

3월 20일(수)-21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자갈치로 시집온 꿈 많고 당찬 몽골 아가씨 자르갈은 시장에서 양공주 출신의 트러블메이커 박복녀와 만난다. 두 사람은 좌충우돌 우여곡절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함께 한다는 것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되묻는다.

▪ 작 | 김지식 ▪ 연출 | 김태호

극단 맥 '이덕 머리에선 향기가 내세'

3월 22일(금) 오후 7:30, 23일(토)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1년 근로자문예제에서 희곡부문 금상을 수상한 작품. 치매에 걸린 팔순 노모와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3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가 펼쳐진다.



▪ 작 | 유수현 ▪ 연출 | 이정남

극단 세진 '스트랜딩' **폐막작**

3월 23일(토)-24일(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고래가 해안가로 밀려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현상, 고래의 집단자살을 일컫는 '스트랜딩'. 화목하던 가정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운명에 처하게 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작 | 유수현 ▪ 연출 | 김세진

뮤지컬의 금기를 넘어서 리얼리즘 뮤지컬 ‘1976 할란 카운티’



◆ …… 연극평론가 김문홍

뮤지컬은 쾌락적 기능에 충실한 연극의 한 장르이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노래와 음악, 리드미컬한 댄스, 그리고 해피엔딩의 극적 서사가 어우러진 양식으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일종의 대중적 상업극이다. 그런데 문화기획 ‘예술은 공유다’가 기획한 뮤지컬 ‘1976 할란 카운티’(유병은 작, 연출, 2019년 1월 11일~2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는 그런 뮤지컬의 금기를 깨고 비판과 고발의 리얼리즘 정신에 충실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76년 미국 중남부 켄터키 주의 작은 마을 할란 카운티 광산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쟁취를 위한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런 메인플롯에 노예해방 1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상존하는 흑인 차별의 서브플롯으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병치되어 극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노동문제와 인권문제라는 보편적 소재와 주제의식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 형편과 사정이 다른 우리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흑인 라일리가 대사 없는 수화의 마음을, 그와 동행하는 다니엘이 그의 정서와 생각을 노래로 표현해주는 소통 방식이 아주 독창적이다.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무대정치의 운용 메커니즘과 노래의 다양한 연극적 기능이다. 이 작품 속의 노래는 대화를 통한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감정표현과 극적 서사의 전개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가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그런 의도가 객석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대 디자인과 장치, 그리고 장면전환의 메커니즘은 이 작품의 압권이다. 무대 후면에 투사되는 영상은 탄광 내부로 들어가는 영상의 줌인 기법과 계절과 시간의 배경, 그리고 극적인 효과까지 극에 역동성을 부여하

는데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극적 서사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적지 않은 제작비를 만회하는 길은 흥행을 위한 뮤지컬의 요소를 살리는 길이다. 리얼리즘의 비판 기능을 서사를 관통하는 주제로 삼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서브플롯을 향신료로 첨가해 관객의 쾌락적 기능을 보완해 정서적 감동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사랑의 힘이 이들의 투쟁에 하나의 힘이 되고 고난을 극복하는 자극제가 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에피소드의 투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거기에 한 뼛 더 하여 노래의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한 보이스 테크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서사 전개에 꼭 필요한 대사는 영상으로 전달해도 무방할 것이다.

무대 디자인과 장치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소재와 주제의식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상적 현실을 나타내는 무대 전면에 비해 공간 분할이 중앙과 후면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전면의 일상적 공간에서 사랑,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등이 더 많이 재현되어야 한다. 즉, 뮤지컬의 본원적 기능에 충실한 극적 서사가 여기에서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후면의 서사적 무게감을 조금 덜어내고 전면의 기능을 더 보완하면 쾌락성과 교훈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되는 것이다. 수정 보완된 완성도의 작품이 다시 부산에서 선보이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공연은 우리에게 왜 이런 작품이 안 되는가에 대한 자괴감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예술문화 정책의 포용성과 투자, 연극인의 자각과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꿈이다. 전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스튜디오에서 길거리로 나오다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展



◆ … 사진작가 김홍희

패션 사진을 길거리에서? 다큐멘터리 찍듯이? 현장감을 드러내고 자 세팅을 표 안 나게 하려면 최고의 테크닉과 자신의 감각만 완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것도 일회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의 '노만 파킨슨' 전시를 보고 느낀 첫 번째 충격이었다. 요즘의 패션 사진이야 거리에서 찍거나 외국에 로케이션을 나가 촬영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노만 파킨슨이 왕성하게 활동한 1930년대 말은 거의 스튜디오 촬영으로 패션 사진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필요하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 현지 길거리 촬영을 통해 완벽한 패션 사진을 만들어내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사진과 거리에서 완성된 사진은 보여주는 옷과 생활 속의 옷이라는 철학의 분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옷이 실제로 소화되는 곳은 생활 속이고 그 생활의 많은 부분이 길거리이거나 일반적인 생활공간이라면 여기야 말로 옷이 완성되고 패션이 정점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만 파킨슨이 영국 런던의 어두운 뒷골목부터 왕궁까지를 촬영지로 선택한 것을 통해 필자가 말하는 그의 패션을 담는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사진에는 당시 최고의 모델들이 등장한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대리석 조각처럼 늘씬하고 8등신 이상의 완벽한 조형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귀하다. 어느 왕족의 왕녀들처럼 귀티 나는 귀인상이다. 그런데 노만 파킨슨은 이런 여성 모델들을 거리나 왕궁의 한 쪽에 세워 촬영하면서도 그 장소와 이질감을 느끼거나 유리되게 촬영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영국이라는 환경과 거기에 어울리

는 모델을 선택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감성으로 엮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스튜디오에서 길거리로 모델들을 데리고 나온 그의 깊은 철학이 읽히는 대목이다.

영국판 <보그>의 사진 에디터이자 큐레이터인 작가 로빈 뮤어가 찍은 노만 파킨슨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노만 파킨슨이 프랭키라는 모델을 촬영하기 전에 어떤 구상을 모델에게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액세서리를 들이대면서 이랬으면 더 좋겠다고 혼잣말로 주문하는 것 같기도 한 장면의 사진이다. 모델을 향해 서 있는 그의 자세는 마치 춤을 추는 듯, 모델을 존중하며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그의 나이 70세이던 1983년에 찍힌 노만 파킨슨의 사진을 보고 사진가인 나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게... 저러니 최고의 패션 사진가이자 행복한 작가인 게지! 렌즈를 통해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노만 파킨슨이 찍힌 사진 한 장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니 그가 찍은 모델들이 하나같이 왕녀 같고 어디에 있어도 이질감이 없는 친숙한 대상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다.

파킨슨의 전시 '스타일은 영원하다'를 부산에 유치한 관계자들의 안목과 열정에 감사한다. 도시는 그 도시가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급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한다. 앞으로도 노만 파킨슨 같은 훌륭한 작가의 작품을 부산시민회관 관계자들의 열정으로 유지하기를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노만 파킨슨'전은 4월 30일(화)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가로서 강추하는 전시니 꼭 관람하시기 바란다.

부산문화회관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일 시 3월 6일(수)-2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통합티켓 8만원(경연작 전 작품), 통합티켓 4만원(경연작 5작품)
문의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2019 부산연극제. 2019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3월 6일 저녁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상 및 폐막식은 3월 24일 저녁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 경연 참가작

극단 에저도 '순이' [개막작]

3월 6일(수)-7일(목) 오후 7:30
한국전쟁 당시 영도다리 위에서 친아들과 헤어졌던 순이는 몇 년이 흘러 친아들을 만나지만, 밀수꾼이 된

친아들과 밀수꾼을 잡는 형사인 의붓아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데...

- 작/심상교, 김지연 • 연출/최재민

극단 배우창고 '강석봉 베이커리'

3월 9일(토)-10일(일) 오후 6:00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는 재빠서 강석봉을 통해 우둔해보이지만 우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여다보는 작품.

- 작, 연출/박훈영

극단 누리에 '여자이발사'

3월 12일(화)-13일(수) 오후 7:30
조선의 사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현해탄을 건너지만 결국 버림받고 쓸쓸히 이국땅에 남겨진 한 '일본인 처'의 비운의 삶을 그린 작품.

- 작/전성태 • 연출/강성우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똥사인의 전사들'

3월 19일(화)-20일(수) 오후 7:30
2016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7, 제10회 차범석 회곡상을 수상한 '똥사인의 전사들'.

- 작/김은성 • 연출/최용혁

극단 맥 '이녀 머리에선 향기가 나네'

3월 22일(금) 오후 7:30, 23일(토) 오후 6:00
치매에 걸린 팔순 노모와 아들내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3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가 펼쳐진다.

- 작/유수현 • 연출/이정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9회 정기연주회 클래식한, 봄맞이

일 시 3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새봄의 기운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래식한, 봄맞이'.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 없는 테크닉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함께 한다.

프로그램

요한 스토라우스 2세/ '봄의 소리' 왈츠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3번
라벨/라 발스
모차르트/교향곡 제31번 '파리'

전지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 V

일 시 3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아마데우스 070-7677-6542



2009년 비엔나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50년 만에 한국인 최초로 준우승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던 피아니스트 전지훈의 무대. 전지훈은 예원학교 재학 중 14세의 나이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학사과정에 최연소 입학, 17세의 나이로 장하림과 함께 최연소 수석으로 조기 졸업한 후 19세에 석사과정 최연소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이번 무대는 전지훈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시리즈' 무대로, 소나타 제7번과 제11번, 제16번, 제23번을 들려준다.

이웃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T-콘서트

일 시 3월 10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티브로드 070-8188-9616



따뜻한 새봄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하는 자선 나눔 콘서트. 평소 공연장 방문이 어려웠던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설운도, 강진, 박우철, 현숙, 진성, 임수정, 박상철, 금잔디, 성진우, 양용모, 배금성, 정연순, 차성연, 오로라, 이청아, 손민채, 김소유 등 성인가요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 사랑 나눔 콘서트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공연을 즐기는 관객은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별도 설치된 성금함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공연 후에는 주최측인 아이넷TV와 티브로드가 참석한 관객 1명당 1,000원을 적립한 금액을 기부하는 특별한 기부행사도 펼친다.

UKO 오케스트라 제44회 정기연주회 사랑나눔 음악회

일 시 3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UKO 오케스트라 988-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UKO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 단원들과 전문연주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UKO 오케스트라는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뮤지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봄을 깨우다'라는 부제로 클래식 명곡 및 영화 OST,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지휘/김봉미 • 바이올린/임재홍
• 테너/김준연 • 소프라노/김아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일 시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한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교향악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NN방송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와 해설,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윤정빈, 바리톤 성승욱,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이 협연자로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금난새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R. Schumann series II
‘여인의 사랑과 생애’

일 시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의 연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생애’ 전곡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부산 MBC 손지현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은 이번 무대는 순수한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인의 사랑’(166회 정기)에 이은 슈만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특히 화이트데이를 맞아 공연장을 찾은 연인들에게 사랑을 담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오보에/류재환 ● 콘트라베이스/우현수
- 타악기/김영준
- 대금/강은주 ● 피리/지영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패밀리뮤지컬
‘핑크퐁랜드-황금별을 찾아라’

일 시 3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20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아기상어 뚜루뚜루’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킨 핑크퐁을 주인공으로 한 가족뮤지컬 ‘핑크퐁랜드-황금별을 찾아라’. 이번 무대는 꿈과 환상의 나라 ‘핑크퐁랜드’로 떠나는 핑크퐁과 튠튠뱀의 여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용기를 심어준다.

특히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구현한 미디어 퍼포먼스 LED 영상과 무대 활용으로 환상적인 핑크퐁랜드를 구현하며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입체감 있고 활기찬 무대를 선사한다.

김미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김미희 010-2665-2713



섬세한 테크닉과 명료한 음악적 해석으로 유럽 현지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호평받은 피아니스트 김미희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피아노과를 실기수석으로 입학한 후 도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학사과정,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김미희는 독일 유학시절 독일-한국음악제 ‘젊은 거장들의 무대’에 연주자로 선정되어 프랑크푸르트 국립극장에서 리사이틀을 성황리에 마치며 현지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 ‘3개의 녹턴’, ‘2개의 프렐류드’, 스케르초 제2번 작품 31, 발라드 제4번 작품 52, 소나타 제3번 작품 58 등 쇼팽의 곡들과 관객들과 만난다.

양상블 자비에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김규 010-4006-0059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유효정,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이태인, 피아니스트 이시현으로 구성된 양상블 자비에의 무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대, 줄리어드 음대, 뉴잉글랜드 음악원 동문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성된 양상블 자비에에는 그동안 연주회를 통해 들어온 수익금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음악인들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다.

부산에서 처음 연주회를 갖는 양상블 자비에는 ‘봄’이라는 주제로 슈만의 ‘환상소곡’, 비탈리의 ‘샤콘느’, 멘델스존 ‘현악4중주 제2번’ 등 봄의 서정을 담은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수익금은 부산의 보육시설인 ‘소년의 집’에 전액 기부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엘리자벳’

일 시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24일 토요일 오후 2:00, 7: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단 22일 공연은 제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제된 삶 속에서 자유를 꿈꾸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엘리자벳 황후의 이야기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매혹적인 스토리로 풀어낸 뮤지컬 ‘엘리자벳’.

특히 1400여 개가 넘는 방이 있었을 정도로 성대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궁전을 재현,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완성했으며 황실의 결혼식, 무도회, 황제의 대관식 등 화려한 장면들은 현대적인 영상과 조명을 활용해 세련된 무대를 보여 준다.

부산문화회관

이윤지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섬세한 음악성과 테크닉 그리고 지성적인 면모를 두루 갖춘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윤지 귀국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윈스터담대에서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윤지는 일찍이 스포츠서울 콩쿠르,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예원대학교 콩쿠르, 신라대학교 콩쿠르, 난파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독일 유학시절 활발한 실내악 연주와 국내외 유명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하며 음악적인 경험과 연주의 깊이를 더해온 이윤지는 이번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국악관현악단 제200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봄의 소리'

일 시 3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국악관현악단 607-3124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흥겨운 창작국악으로 전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봄의 소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고 허경미 무용단 무무 대표 허경미, 국악계의 아이돌 스타 송소희가 출연, 신명넘치는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0회 무대를 축하한다.

프로그램
박범훈/무용과 국악관현악 '춘무'
계성원/창작국악관현악 '매화 봄향기 속으로'
김만석/국악관현악 '청춘도'
송소희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등

글로벌콰이어 제27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글로벌콰이어 010-8544-4702



지난 1982년 6월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글로벌콰이어 제27회 정기연주회. 사회의 취약지역 및 소외된 지역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글로벌콰이어는 2006년부터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단체에 기부해오며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따뜻한 새봄을 맞아 'Happy things'라는 주제로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열리며, 연주회의 수익금 역시 청소년·다문화 국제봉사단에 전액 기탁된다.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부산시향의 2019 우리 아이 음악회

일 시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봄의 신록이 가득한 3월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평소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었던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곡으로 음악을 통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다. 현재 IF양상블 지휘자, HOW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이요섭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홍보담당, 부산연극제작소 동년 대표로 있는 박지현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답고 친숙한 선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와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극인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일 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노자와 베토벤'이 2019년 무대 '고진감래(苦進感來)'.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했던 최진석 교수와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올해도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2019년 올해 새롭게 만나는 주제는 '고진감래(苦進感來)'. 이번 무대에서는 '고진(苦進)'을 주제로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주역으로 활동하며 2018년 대한민국 테너 최우수예술가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부산 출신 성악가 전병호가 관객과 만난다.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설유리 010-8510-4654



부산의 정통클래식 애호가들과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비바체임버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부산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왔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있는 다니엘S김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다니엘S김
• 협연/서길수(바이올린), 조은주(성악), 김시윤(피아노)

2019 제37회 부산연극제

일 시 3월 6일(수)-2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통합티켓 8만원(경연작 전 작품), 통합티켓 4만원(경연작 5작품)
문의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2019 부산연극제. 2019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3월 6일 저녁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상 및 폐막식은 3월 24일 저녁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 2019년 경연 참가작

극단 이야기 '노다지'

3월 10일(일) 오후 6:00, 11일(월) 오후 7:30
 세계 3대 금광이었던 운산금광을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을 치열하게 그린 작품.

● 원작/김유정 ● 작/남혜진 ● 연출/박현형

극연구집단 시나위 '귀가'

3월 13일(수)-14일(목) 오후 7:30
 주인공 태준의 회상 속에서 펼쳐지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통해 가족과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품.

● 작/김지훈 ● 연출/반필우

극단 더블스테이지 '클로즈업'

3월 16일(토)-17일(일) 오후 6:00
 욕망을 소재로 영상을 활용한 배우의 심리표현을 담은 아난 창작 메타연극.

● 작/김지숙 ● 연출/김동민

극단 여정 '복녀씨 이야기'

3월 20일(수)-21일(목) 오후 7:30
 자갈치로 시집은 꿈 많고 당찬 몽골 아가씨 자르갈과 시장의 트러블메이커 박복녀와의 좌충우돌 우여곡절 만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묻는 작품.

● 작/김지숙 ● 연출/김태호

극단 세진 '스트랜딩' [폐막작]

3월 23일(토)-24일(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고래의 집단자살을 일컫는 '스트랜딩'을 소재로, 화목하던 가정에 낯선 남자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운명에 처하게 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 작/유수현 ● 연출/김세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벚꽃스캔들-부산

일 시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20% 할인)
문의 에이엠엔터테인먼트 1899-0042



벚꽃이 피는 봄의 설레는 감성을 채워줄 특별한 콘서트 '벚꽃스캔들'. 독보적이고 세련된 저음역대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하이를 비롯해 풍부한 감정선과 특유의 미성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남태현, 최근 TV프로그램

'더 팬'을 통해 조명받고 있는 인디 음악의 새로운 강자 오웬, 차세대 발라드 보컬리스트로 주목받으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감동을 주는 김나영, 힘찬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실험적 색채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기리보이 등 다양한 색깔의 아티스트들이 출연, 5인 5색의 특별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우리춤 산책'

일 시 3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신명이 살아있는 흥겨운 춤사위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우리춤 산책'.

'우리춤 산책'은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정기공연에서는 만날 수 없던 단원들의 우리춤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묻어나는 자리이다.

올해 무대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비롯해 산조춤, 통영 살풀이, 훈령무, 소고춤, 원향지무, 장고춤, 태평무, 진도북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승무와 산조춤, 통영 살

풀이, 원향지무, 장고춤은 이들에 걸쳐 두 명의 단원이 각기 다른 자신만의 춤사위로 풀어내면서 관객들이 비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7일 프로그램

승무(이매방류)(춤/황동하, 장고/김주연)
 산조춤(춤/윤은하)
 통영 살풀이(염옥자류)(춤/전혜련)
 훈령무(송준영류)(춤/강모세)
 소고춤(김묘선류)(춤/김시현, 팽과리/김미란, 장구/김윤호, 북/최의옥, 징/허태성, 나팔/한상훈)
 원향지무(춤/권봉정)
 장고춤(염영춘류)(춤/김주령)

8일 프로그램

태평무(한영숙류)(춤/이현주)
 원향지무(염옥자류)(춤/김동숙)
 장고춤(배정혜류)(춤/김미란)
 산조춤(춤/정진희)
 통영 살풀이(염옥자류)(춤/박창희)
 승무(이매방류)(춤/장래훈, 장고/허태성)
 진도북춤(춤/김주령, 권봉정, 오수연, 김시현, 김수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춤추는 동화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

일 시 3월 26일(화)-4월 5일(금) 오전 11:00 (토-일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전석 1천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3121-2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2019 춤추는 동화'.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내는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공연 때마다 매진

사례를 남기고 있다.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미있는 춤극으로 풀어낸 '날 잡아봐라 토끼와 거북이'는 '용궁에서', '토끼를 찾아서~', '날 잡아봐라~', '경주하기', '용왕과 거북이의 만남' 등 총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 관객인 어린이들이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 대본, 구성/서정숙(훈령지도자)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1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6일(676회) 부산 플루트 아티스트 스타 콘서트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성 플루티스트와 프로연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신진 플루티스트가 함께하는 듀엣무대.



20일(677회) 비운의 천재 작곡가 앙리 뒤파르크 가곡의 밤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윤희가 들려주는 '앙리 뒤파르크 가곡의 밤'.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 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마이스터 예자멘 과정을 졸업하는 등 학구적인 열정을 이

제2회 우다연 색소폰 독주회
Rencontre(만남)

일 시 3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우다연 010-9669-0086



색소폰 클래식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우다연의 두 번째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블, 예브리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 파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우다연은 현재 부산아시아콘서트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앙상블 Wish&Wind, 리드 앙상블 Blatt, 부산색소폰콰이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진승민
- 재즈피아노/김대규
- 바이올린/손은혜
- 첼로/김기량
- 플루트/장예지
- 클라리넷/유지훈

어은 조윤희는 현재 브니에예술고등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7일(678회) 플루트, 클라리넷 듀오 리사이틀
현재 부산예중, 부산예고, 인천예고에 함께 출강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백양인과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의 듀오무대.
백양인은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독, 베를린 국립음대,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백양지는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현대음악앙상블 Project 21And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슈미트/소나티네 작품 85
빌라 로보스/샤콘느 제2번
블로흐/콘체르티노
도플러/안단테와 론도 작품 25 등
- 피아노/박윤정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9일 토요일 오후 6: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010-6432-0821



지난 2002년 다양한 직업군의 음악 동호인들로 출발한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멜로소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연주, 금정수요음악회, 울산 아가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환우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야외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테너/Sisco Loga
- 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김채현&김주원&백운빈 조인트
클라리넷 리사이틀

일 시 3월 8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박승진 010-5032-1724



클라리넷을 전공하고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주원, 김채현, 백운빈 조인트 리사이틀.
김주원은 부산음악협회 제44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1위, 부산대학교 전국학생음악콩쿠르 고등부 금상, 서울 우현콩쿠르 제20회 고등부 2위를, 김채현은 제17회 울산대학교 전국학생음악콩쿠르 3등, 부산음악협회 제45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2위, 제25회 글로벌콩쿠르 은상을, 백운빈은 제32회 동백대성 국제음악콩쿠르 2등, 부산음악협회 제44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3위, 음악교육신문사 부산지사 2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사사/박승진
- 피아노/정용희

제3회 영도 유스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관람 연령 제한없음)
문의 서민규 010-8633-4792



연주를 통해 단원들이 다양한 무대경험을 쌓고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영도 유스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새학기를 맞아 'New semester'라는 타이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앙상블 또는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 프로그램**
엘가/사랑의 인사
메르카단테/플루트 협주곡 마단조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등 수록
- 지휘/서민규
 - 협연/플루티스트 김나연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2019 신인을 주목하라!

일 시 3월 11일-15일 월-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신인 연주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2019 신인을 주목하라!’ 부산, 경남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음악전공자들이 출연, 첫날인 11일에는 성악, 12일 피아노, 13일 피아노, 현악, 14일 관악, 15일 작곡 등 분야별로 나뉘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성민주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3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성민주 010-3815-3190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실기수석으로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음대에서 연주석사와 최고 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 성민주 독주회. 오스트리아 유학시절,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다수 연주회를 가지며 현지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던 성민주는 2010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Piano Plus 정기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부산음협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부산연주인시리즈’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2019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시즌 2

일 시 3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무료 제공)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영화 음악감독 푸디토리움과 함께하는 영화와 영화음악 이야기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두 번째 시즌.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김정범)이 진행하는 시네마 브런치는 매월 색다른 주제가 어우러진 영화 OST를 개성 있는 아티스트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3월 무대에서는 ‘귀로 그린 그림이야기, 드뷔시’라는 주제로, 반 고흐의 삶과 죽음을 그려낸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Loving Vincent, 2017년 작)’를 통해 인상주의 회화에 관한 이야기와 드뷔시, 라벨의 현악 4중주를 들려준다.

제4회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봄 그리고 조국

일 시 3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국가유공자 및 동반 3인 5천원
문의 강현아 010-5520-8728



고신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음악단체 벨라무지카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봄 그리고 조국’이라는 테마로 열리며, 이번 무대에 이어 3월 2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주 상해 한국문화원에서 한차례 더 공연을 갖는다.

- 출연/고은경, 장진아, 김미영, 이성미, 강현아, 조성희, 이은진, 최선경, 류희은
- 특별출연/바이올리니스트 윤주연, 테너 이승우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57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봄을 기다리며...’

일 시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 50%, 단체20인 이상 30% 할인)
문의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10-3838-4291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40여회 이상의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했으며,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하며 매월 정기 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이은민, 김지호, 조윤환, 소프라노 박현정이 출연, 새봄을 맞는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지휘/홍성택(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부산피아노트리오 2019 브람스 트리오 전곡 기획연주 시리즈 1

일 시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피아노트리오 010-3325-8729



세대를 이어 ‘국내 최장수 트리오’라는 뜻깊은 전통을 세워가고 있는 부산피아노 트리오가 2019년을 맞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피아니스트 제갈삼, 첼리스트 배종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문 선생에 이어 현재 백재진(바이올린), 권준(피아노), 이일세(첼로)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트리오는 이번 기획연주 시리즈를 통해 낭만주의 작곡가 중 누구보다도 수많은 명작을 남겼던 브람스 트리오를 들려준다.

시리즈 첫 번째 무대인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호른 부수석 백상홍의 협연으로 바이올린, 호른,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내림마장조 작품 40, 피아노 트리오 제2번 다장조 작품 87로 관객과 만난다.

기타공연장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100회기념 '다시 듣고 싶은 연주:양성원'

일 시 3월 20일 수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참여 후원비 1만원(사전 예약자에 한함)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kr



지역 최초의 사진 전문미술관인 고은사진미술관이 매월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사진이 있는 음악회 100회 기념무대. 사진이 있는 음악회는 그동안 최고의 연주자와 청중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이번 무대는 '풍부하고 깊이있는 톤과 뛰어난 선율감각의 소유자'로 호평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의 연주로 꾸며진다.

- 음악감독/윤성현
- 바로크 바이올린/로 테라카도
- 피아노/피터 오브차로프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명아티스트 시리즈 I '백건우&쇼팽'

일 시 3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학생 30%, 단체 20인 이상 20% 할인)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한국이 낳은 이 시대의 대가 피아니스트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19년 무대. 1993년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으로 디아파종상을 포함한 프랑스 3대 음반상을 수상한 백건우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연주에 전념하고 있으며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기사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백건우가 자신만의 해석으로 쇼팽 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무료
문의 이은주 010-3563-4540, 배아름 010-4817-9645



지난 2013년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창단한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매년 음악캠프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를 비롯해 부산 학생 연합 오케스트라 연주회, 부산국제마루음악제 드림프로젝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 최고의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지휘/김하균, 배현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IV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고별'

일 시 3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네 번째 무대. 지난 2017년 6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의 대장정을 시작하며 베토벤

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 박정희는 이번 무대에서 소나타 제1번, 제2번, 제24번 '테레제', 제25번 '빠꾸기', 그리고 제26번 '고별'을 들려준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론지음악원을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정희는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Pour ie Piano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Pour ie Piano 010-8601-4945

부산의 중견 피아니스트 한은아 선생과 그의 문하생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주옥, 김보은, 김현정으로 구성된 Pour ie Piano의 4번째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 라흐마니노프/악흥의 순간 작품 16
-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왈츠 작품 22
- 쇼팽/발라드 작품 52
- 차이콥스키/네손을 위한 '백조의 호수' 중 '정경'
- 포레/둘리 모음곡 작품 56

- 연주/한은아, 서주옥, 김보은, 김현정

제15회 부산 리더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3월 31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관람 연령 제한없음)
문의 서민규 010-8633-4792



플루트 앙상블에서 플루트 오케스트라로 재편성된 후 보다 수준높은 무대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부산 리더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My favorite songs'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연주한 곡 중 단원들이 선정한 곡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특별 게스트/박찬엽(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연극 | Play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1월 4일(금)-3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 (공휴일 공연시간 확인,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손예진, 송일국 주연의 동명 영화로도 유명한 '작업의 정석'은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극단새벽 창단 35주년 레퍼토리 기획공연1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일 시 3월 28일(목)-6월 1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부산 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극단 새벽 245-5919



지난 1998년 초연된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은 비무장지대(DMZ) 어느 골짜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남북분단 상황을 들여다보는 작품으로, 영지의 땅에 대한 내력과 소유권 다툼을 제기하는 '틀극', 그리고 사자의 진행으로 드러나는 '극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작, 연출/이성민

혼자하는 연극 함께 하는 공연 따로 또 같이

일 시 3월 1일(금)-7일(목)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3월 1일 오후 6:00), 3월 28일(목)-4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 없음), 4월 24일(수)-2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가온아트홀 1,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예매시 2만원, 3월 6일까지 예매시 전체관람권 2만5천원)
문의 가온아트홀 1600-1602

그동안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극단 창, 극단 사계, 극단연 등 3개 극단이 함께 하는 '따로 또 같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극단 창이 '출구 없는 방'을 시작으로 극단 사계의 '그녀가 사는 방식', 극단 연의 '시라노 드 베르주락' 등 부산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극단 창 '출구 없는 방'

3월 1일(금)-7일(목)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3월 1일 오후 6:00) 가온아트홀 1관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는 방에 갇힌 세 사람, 점차 서로의 배경과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이해하려는

너버벌 퍼포먼스 '플라이팬(FLY-PAN)'

일 시 3월 30일(토)-4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30, 일요일 오후 2:00, 5:3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맛있는 창작 너버벌 퍼포먼스 '플라이팬(FLY-PAN)'. 러시아를 배경으로, 비빔밥과 불고기가 담긴 한식당 배달원의 피크닉 가방과 불법 거래 자금이 든 마피아의 피크닉 가방이 바뀌게 되면서 펼쳐지는 코믹하고 유쾌한 '플라이팬'은 팽과리와 장구, 징 등 경쾌한 국악 연주와 짜릿한 락 스피릿, 여기에 다양한 한식재료와 도마, 식칼, 빗자루, 무술 검 등이 만들어 내는 신나는 타악 리듬이 신명을 북돋우며, 절도 있는 태권도와 자유분방한 비보잉, 아크로바틱의 콜라보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노력도 없이 서로를 도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 이 출구 없는 밀실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이 세 사람은 왜 이 방에 모인 것일까? 여기에서 그들은 어떠한 구원을 찾아 낼 것인가?

- 연출/김현
- 출연/김학준, 박정은, 김수경, 장현수

극단 사계 '그녀가 사는 방식'

3월 28일(목)-4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 없음) 가온아트홀 2관
 ● 작/윌리 러셀 ● 연출/김민중
 ● 출연/권철, 김수정

극단 연 '시라노 드 베르주락'

4월 24일(수)-2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가온아트홀 2관
 ● 작/에드몽 로스탕 ● 연출/오정국
 ● 출연/배진만, 김수경, 김학준, 차승현, 장민

행사 | Event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아지랑이 봄 선율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프로그램

- 3월 5일(691회)**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 교향곡 제3번 'Rhenish' 작품 97
- 3월 12일(692회)**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 교향곡 제4번 라단조 작품 120
- 3월 19일(693회)**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 연가곡 '시인의 사랑' 작품 48을 중심으로
- 3월 26일(694회)** 이달의 책 읽기 '농담'(밀란 쿤데라 저, 민음사)

기타공연장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12만원(3개월)
문의 김군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에서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감동이 있는 클래식음악 영상감상회. 해외의 최신 클래식음악 연주회실황을 고화질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루치아노 베리오 판)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쇼팽 피아노협주곡 2번
베토벤 교향곡4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비발디 만돌린협주곡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전막 감상

시네바움·아트홀바움 3월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목요일 오전 10:00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목요일 강좌는 무료)
문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4일(월) 시대 읽기 '미투'

● 강사/방정민(문학박사, 무명인문학연구소 소장)

5일(화) 박기철교수의 이야기콘서트(6) 공양(供養)

● 강사/박기철(경성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7일(목), 14일(목), 21일(목), 28일(목) 무료 아카데미_고전의 향기 '지혜와 성찰의 길-논어'

● 강사/윤산 김수정(부산 카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대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1일(월)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영화, 인생 후루츠

● 강사/김해창(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12일(화) 무의식과 시각예술(2)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12일(화) 오후 7:30, 13일(수) 오후 2:00, 16일(토) 오후 3:00, 22일(금) 오후 7:30, 25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16일 철학특강은 전석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2일(화) 오후 7:30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9강 '구스타프 말러 III'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현대음악의 선구자 말러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39번째 강좌.

13일(수) 오후 2:00 '색이 삶을 말하다' 특강

마르크 샤갈 '색채의 미술사' 샤갈의 마음을 찾아나서는 특별한 시간.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상징과 픽션_영화, 국제시장·태극기 휘날리며

● 강사/강성한(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8일(월) 동양의 미학(16)

우에다 아키나리 원작 우게쓰이야기(雨月物語) 어둠의 미학

● 강사/안수현(부산카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9일(화) '공간을 넘어 장소로'

장소 특정적 현대의 공연예술

● 강사/박나훈(영산대학교 연기공연예술학과 교수)

25일(월) 호메로스 읽기(3)

트로이의 정체(政體)에 관한 추론들

-아가멤논의 무능과 은폐된 전쟁의 원인, 뇌물-

● 강사/김해룡(전-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26일(화) 4-3의 비극을 넘어 대화해를 꿈꾸는 그의 생각과 예술_화가·강요배

● 강사/최석태(미술평론가)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삼일절 기념 시 낭송회

일 시 3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오성병원 11층 대강당
문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16일(토) 오후 3:00 철학 특강 '미셀 푸코의 철학 입문'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및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철학 학교 해움' 교장으로 있는 허경의 철학 특강.

자신이 쓴 푸코 입문서를 한줄 한줄 읽으며 푸코/철학의 기본 개념과 사유의

정수를 소개한다.

● 강사/허경(철학학교 해움 교장)

22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행복한 여행 인문학 이야기' 제15강-프랑스 남부지역 아름다운 풍경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사랑받는 프랑스 남부지역으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5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하다' 제23강 미술의 눈이 된 색채, 화가를 말하다 '프리다 칼로' 색채로 말하는 2월의 화가는 멕시코 여류 국민화가인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삶의 고통과 애착들이 펼쳐내는 색채를 통해 예술과 삶의 관계, 그리고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전문가)

전시 | Display

'Sweet Break:달콤한 휴식'展 -박진성, 한충석

일 시 3월 6일(수)-3월 25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봄날에 정을 나누는 그림 春情畫

일 시 3월 11일(월)-3월 24일(일)
해운대문화회관 제1전시실
문의 갤러리 예가 624-0933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한국 괴물 백과

곽재식 지음 / 위크루프레스
656p / 2만 2천원

옛날 이야기, 전설, 민담 속에는 괴물들이 등장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잊히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괴물을 하나하나 찾아서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전해주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2007년부터 한국의 옛 기록에 등장하는 괴물 이야기를 정리해 ‘괴물 백과사전’이라는 블로그에서 공개해 왔다. 이 블로그는 민속학 연구자, 소설가, 게임 및 웹툰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면서 온라인 괴물 소굴로 알려져 있다.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채집한 한국 괴물 가운데 282종이 소개됐다. 18세기 이전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각종 괴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자료조사로 삼은 책은 ‘용재총화’, ‘어우야담’,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문선’, ‘대동야승’ 등이다. 19세기 이후의 기록, 작자가 불분명한 문헌에 기록된 괴물,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괴물, 기록 없이 입으로만 전해 내려온 괴물은 모두 배제했다. 괴물을 묘사한 일러스트도 저자가 정리한 자료에 기반을 두었다. 책을 펼치면 왼쪽에 괴물 일러스트가, 오른쪽에 글이 있는 구성이다. 어떤 면에서는 ‘괴물’보다는 ‘한국’에 방점이 찍힌 책이다. 이 책은 괴물을 둘러싼 우리 민족 대대로 전해진 상상력의 기원을 찾아보려 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권정자 외 지음 / 남해의봄날
192p / 1만 8천원

전남 순천에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 스무 명의 글과 그림을 모은 책. 할머니들은 순천그림책도서관의 ‘내 인생 그림일기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림책 작가 김석중 씨에게 그림을 배웠다. 처음에는 선을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를 그렸다. 2년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할머니들은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졌다. 정해진 수업시간 외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수백, 수천 장의 그림이 쌓였다. 얼핏 보면 어린이의 그림처럼 보인다. 할머니들의 그림은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작품, 화사한 색감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이다. 김석중 작가의 SNS를 통해서 할머니들의 그림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그러보니 솔찬히 좋구만>이라는 이름의 전시회가 순천과 서울 등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매일같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들은 더 바빠졌고, 또 유명해졌다. 책을 펴냈다. 이탈리아 볼로냐 북페어와 미국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에서 해외 전시도 예정돼 있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화제의 그림작가로 데뷔한 것이다. 이 책은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그림과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그림일기다.



조선왕조의 의궤와 왕실 행사

김해영 지음 / 현암사
420p / 2만 5천원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의 ‘의궤’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기록물 중에 하나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왕실 문화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의궤가 조선왕조의 왕실 행사에 관한 국가 기록물이며, 고려와 조선왕조에 특유한 도감 제도와 관련된 기록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의궤의 기록 형식과 구성 내용을 다양한 화보와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전 7권으로 기획된 현암사의 ‘왕실문화총서’ 중에서 세 번째 책이다. 의궤가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의 ‘도감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의궤는 조선의 도감 제도가 남긴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 국가적 행사나 사업, 특히 그 사업이 왕실과 관련되는 행사나 사업일 경우, 공평하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진행 과정을 공문서를 통한 보고와 지시에 따라 행하도록 했다. 그 장치의 하나로 행사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 내용을 당시뿐만 아니라 뒷날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궤는 이러한 제작 배경이 있는 국가 기록물이다. 의궤를 새로운 시각으로 심층분석한 책이다.

부산문화회관 소식

◆ 명품 공연을 5가지 패키지로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2019 봄/여름 예비시즌 운영



(재)부산문화회관이 하반기 본격 시즌 프로그램을 앞두고 봄/여름(3월~8월) 기획 공연을 대상으로 예비시즌을 운영한다.

‘공연시즌제’는 유럽과 미국 등 공연 문화가 활발한 나라와 국내 대표적인 공연장에서 일찍이 자리잡은 제로도, 한 시즌 동안 선보일 공연을 미리 공개해 관객과 예술단체·공연장의 안정적인 공연환경을 이끄는 제도이다. 관객은 시즌에 따라 패키지 할인과 좋은 좌석 선점으로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하고 공연장은 홍보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 새롭고 경쟁력 있는 기획에 집중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첫 시도하는 이번 예비시즌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공연을 5가지 패키지로 만날 수 있다. 클래식이 주를 이루던 기획공연에서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균형있게 구성했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현대무용도 편성하는 등 기존 관객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대형공연 3개를 묶은 ‘명품 패키지’를 비롯해 ‘연극 패키지’, 오전 11시의 여유 ‘마티네 패키지’, 인문학과 클래식의 만남 ‘노자와 베토벤 패키지’, ‘자유 패키지’ 등 총 5가지 구성의 패키지로 만나 볼 수 있다.

2019 봄/여름 예비시즌 전 공연의 티켓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단 패키지 구입은 전화예매(607-6000, ARS 1번)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607-6000, ARS 1번)

◆ 혜택을 늘리다+ 감동을 더하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가입 이벤트 진행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재단법인 출범 2년을 맞아 관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하기 위한 ‘플러스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플러스회원’은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기존 정기회원과 달리 온라인 무료회원으로,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팝업창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하면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정보를 문자,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혜택을 늘리다+ 감동을 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저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가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추첨, 2019 부산문화회관 전 공연 초대권을 비롯해 회원권, 무료주차권, 월간 <예술예의초대> 1년 구독권, 커피 무료 이용권(해리스 협찬)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대상	연월	혜택
▶ 대상 동행기간 중 가입한 회원	연월 1	2019 부산문화회관 전 공연 초대권
	연월 2	부산문화회관 멤버십카드
	연월 3	부산문화회관 스타벅스카드
	연월 4	부산문화회관 예술감독명판
	연월 5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 신청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팝업창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만 기입	연월 6	월간 <예술예의초대> 1년 구독권
	연월 7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연월 8	부산문화회관 보조배터리
▶ 당첨자 발표 2019년 7월 31일 (월)	연월 9	부산문화회관 무선
	연월 10	부산문화회관 무선
	연월 11	해리스 협찬 '아메리카노' 무료이용권 1매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후원회원 25명 참석, 회칙 개정안 의결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2019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0일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후원회원 25명, (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후원회 경과보고와 함께 상정된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지난 일년간 후원회를 이끌었던 최수기 회장, 김암우 감사가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임됐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6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있으며, 지금까지 총 1억원 후원금 모금을 통해 지난해 29인승 셔틀버스를 기증하는 등 (재)부산문화회관 지원에 앞장서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올해 후원회원 배가운동으로 적극적인 회원모집에 나서는 한편,

후원활동을 통한 부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이사회원(300만원 이상)과 일반회원(100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에게는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무료 주차혜택, 대극장 좌석 네이밍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2018년 4월 19일, 대극장 로비)



◆ (재)부산문화회관 제3기 SNS서포터즈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3기 SNS 서포터즈가 지난 2월 1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5일부터 보름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3기 SNS 서포터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과 직장인, 프리랜서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에는 지난해 활동한 제2기 우수 서포터즈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제3기 서포터즈는 앞으로 서포터즈간 적극적인 정보 교환과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재)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SNS 서포터즈 발대식에서는 32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으며, 발대식 후 당일 대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8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루크너’를 함께 관람했다.



◆ 부산시립예술단 시민정신계승 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무대 풍성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예술단이 3·1운동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친다.

삼일절인 3월 1일 10시,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식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수열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기념식 중 진행되는 특별공연으로, 강준일(1944~2015) 곡 ‘마당’, 최성환 곡 ‘아리랑’과 독립군가를 선곡, 삼일절 기념식에 참가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16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3·1운동 정신을 되새겨본다.

강준일 곡 ‘마당’은 농악리듬과 서양의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풍년제, 명절 잔치풍경, 판굿 놀이 등을 묘사한 곡이다.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공식 첫 제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사물광대’의 협연으로 우리민족의 희노애락을 담은 삶의 터전, 마당의 모습을 신명나게 열어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은 3월 1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및 국제신문 복간 30주년 기념음악회’에 출연한다. 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사)부산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사)엔젤피스 예술단, 소프라노 오미선, 테너 윤병길, 가수 안치환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애국가가 주 선율로 등장하는 안익태 곡 ‘한국환상곡’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이 외에도 3월 한달간 중앙공원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설관리공단 공동 주최로 ‘그날의 함성, 100년의 기억’이 펼쳐진다. ‘그날의 함성, 100년의 기억’은 3월 1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한달간 토요일 오후 1: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3·1운동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 2019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부산시민회관 : 극장(소), 전시실 1, 2
※ 대극장은 6월부터 공사 예정으로 대관 불가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9년 7월 1일~12월 31일(6개월)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팝업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2월 25일(월) 09:00 ~ 3월 15일(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온라인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전자우편
- 부산문화회관 : 극장 rent@bscc.or.kr / 전시실 gjh1834@bscc.or.kr
- 부산시민회관 : 극장 kjy17@bscc.or.kr / 전시실 mayday@bscc.or.kr
 - 온라인 : www.bscc.or.kr/rental
- 결과회신 : 3월 말(예정)

대관심의 우선기준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또는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 신청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 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3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 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전(대극장은 60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별도 부과

문의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07-6058, 6066 / 전시실 051-607-6063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30-5234 / 전시실 1, 2 051-630-5232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윤영기(010-7361-7273)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신상현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현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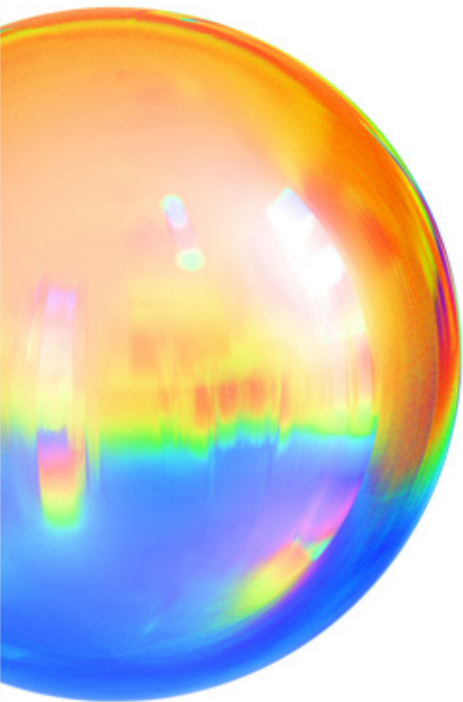
※ 2019년 2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예약중**

3월 30일(토), 6월 2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8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9년 무대

현대무용협동조합 '가을운동회' **예약중**

4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에 한해 1인 2매, 선착순 40매)

대한민국 최고 현대무용가들이 펼치는 컨템포러리 댄싱스타들의 무대

2019 마티네 콘서트 **예약중**

4월 24일(수), 5월 22일(수), 6월 26일(수), 8월 28일(수)
10월 2일(수), 11월 20일(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무대

세계적인 아트서커스 Backbone **예약중**

5월 1일(수) 오후 2:00, 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에 한해 1인 2매, 회당 선착순 30매)

경이로운 곡예와 따뜻한 위트, 환상적인 무대예술의 완벽한 조화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적인 아트서커스단 Backbone의 무대

유라시아 챔버 뮤직 '실내악의 초대' [종료]

5월 27일(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1인 2매에 한해 선착순 20매)

세계 속의 한국 최정상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연극 '인형의 집, Part 2' **예약중**

6월 1일(토)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2017년 토니 어워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집으로 돌아온 '노라'의 이야기

연극 '신의 아그네스' **예약중**

6월 20일(목)-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1인 2매에 한해 회당 선착순 20매)

앵콜공연으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 존 필마이어의 작품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사랑하고 사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마법같은 콘서트!

벗꽃스캔들

이하이 · 남태현 · 김나영 · 오웬 · 기리보이

2019.03.16 (토) 17:00
부산시민회관



Illustration by JEISHA

주최/주관 | 에이엠엔터프라이즈 |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MelOn 티켓

R. Schumann Series II

*Frauenliebe
und Leben*

여인의 사랑과 생애



지휘_ 전진 / 해설_ 손지현 / 오보에_ 류재환 / 콘트라베이스_ 우현수 / 타악기_ 김영훈 / 대금_ 강은주 / 피리_ 지영재

2019. **3. 14**(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관람료 : 균일 10,000원


예매 : www.bscc.or.kr

문의 : 607-3116(시립합창단), 607-6074~5(정기회원)

할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가족할인(3인 이상 가족), 외국인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2019
노자와 베토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苦學感未

고 진 감 래

3.30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外
협연 테너 진병호

6.22

로드리고 아랑웨즈 협주곡 外
협연 하프 황세희

예술감독 오충근

철학자 최진석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19.3.30(토) / 6.22(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문의 및 예매 | 051-607-6000 www.bscc.or.kr

| 입장료 |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부산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過ぎ去る沈黙 横たわる余韻 流れる魂
경험한 적이 없는 침묵 그 속에서 들려오는 생의 울부짖음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물의 정거장



水の駅

작 가 오타쇼고(太田省吾)
객원연출 김 세 일(金世一)

2019. 4. 8(월)~13(토)
주중_19:30 주말_1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출연 정마린 이현주 황찬기 김은희 이현우 엄지선 오혜경 김은옥 서보기 이동현 강범수 HONKE Northisa SUZUKI Mirano SHIBATA Yoshiki TAKENOUCHI Mana ISHIKURO Ko SHINOMIYA Yoshiko 스베틀 작가 오타쇼고(太田省吾) 객원연출 김세일 번역 이지영 드라마투르키 심지연 무대디자인 김유리라 의상디자인 권세영 조명디자인 조세현 무대제작 김재한 사운드이펙트 정만영 분장 이지원 음향오퍼 배기철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홍보 박지현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전석 1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25



(주)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90, 101호 디자인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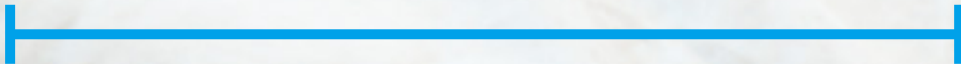
[T] 051)936-1216 [E] info@designbusan.kr [H] www.designivy.com GGO DEUNG 0©DesignBusan All rights reserved.



1m

깊은 잠을 위한 숙면메이트

꼬등어 바디필로우





Australian Government
Major Festivals Initiative



ADELAIDE
SOUTH AUSTRALIA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RTS
SOUTH AUSTRALIA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호주에서 온 세계 최고의 서커스

BACKBONE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태양 같이 찬란한 서커스
기예와 예술의 완벽한 조화!



Winner of
**Australian
Dance Award**
for Outstanding Achievement
in Physical Theatre
2018



Nominated for THREE
**Helpmann
Awards**
for Best Choreography,
Best Lighting Design &
Best New Australian Work
2017



Nominated for a
**Ruby
Awards**
for Innovation
2017

2019년 5월 1일 (수) 14:30 & 5월 2일 (목) 19:30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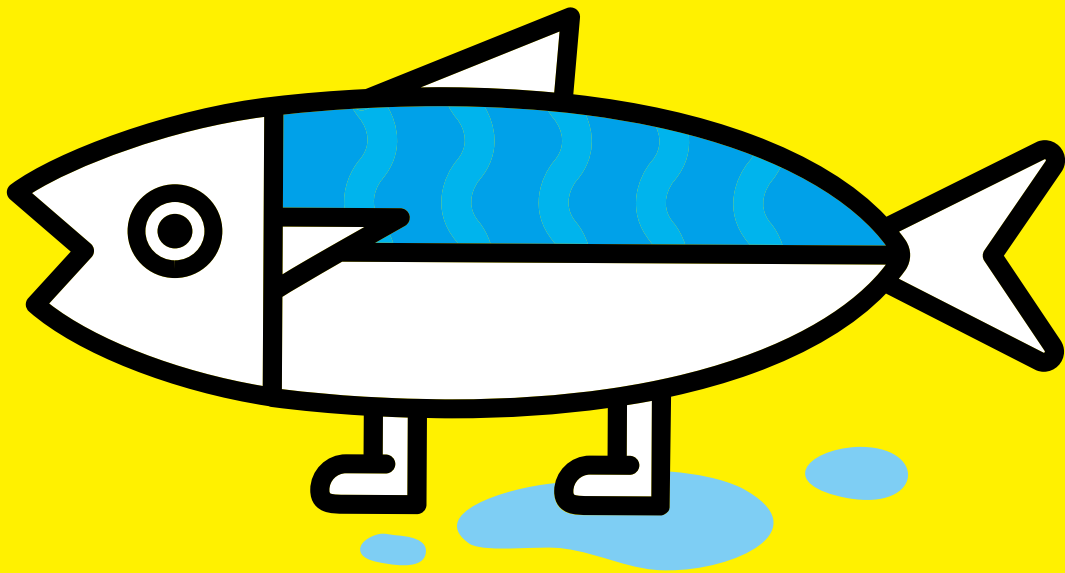
입장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문의 및 예매 051-630-5200 www.bscc.or.kr · 36개월 이상 입장가능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FACEBOOK



INSTAGRAM

(주)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90 평광우리가 1층 TEL. 051. 636. 1216



혜택을 늘리다+ 감동을 더하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모집캠페인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신청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팝업창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만 기입

◆ 당첨자 발표

2019년 7월 15일 (월)

◆ 경품내용

선물 1	10명 (1인 2매)	2019 부산문화회관 전 공연 초대권
선물 2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
선물 3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
선물 4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
선물 5	100명 (1인 5매)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선물 6	100명	월간 <예술에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 7	100명	부산문화회관 텀블러
선물 8	100명	부산문화회관 보조배터리
선물 9	100명	부산문화회관 쿠션
선물 10	200명 (1인 1매)	해리스 협찬 '아메리카노 무료이용권 1매'

* 상품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